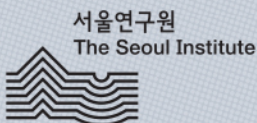


2014-CR-20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4-19

도시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과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로정원 시범조성지 모니터링

정경진



2014-CR-20

도시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과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로정원 시범조성지 모니터링

연구진

연구책임	정경진	(주)이자인 대표이사
연구원	조수연	(주)이자인 이사
	허윤정	(주)이자인 사원

이 보고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서울연구원 및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현재 서울시는 단순 통행위주의 가로를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심미적 안정감과 소통의 장소로 제공코자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서울의 도시 환경은 가로정원에 대한 이해관계자, 즉 가로정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설계 및 시공전문가,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공서 실무자 등의 가로정원에 대한 의식수준, 인식 정도가 서로 다르고, 시민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가로정원 유지관리 매뉴얼의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음. 이 때문에 시공 후 담배꽂초 등 쓰레기의 투기, 식물과 시설물의 훼손, 관수 부족으로 인한 식물의 고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장애, 집중호우 시 배수 및 오염원 유입 등 다양한 유지관리상의 문제 검토가 미흡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가로정원의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 연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 중인 가로정원의 시범사업 조성지를 대상으로 가로정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시공 이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심부 가로정원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가로정원 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서울의 조성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음.

내용 및 방법

- 도시 가로정원에 대한 연구는 1)서울시 가로정원 시범조성지 가운데 2개소를 선정한 후 시공 후 변화 과정의 모니터링, 2)가로정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식조사, 3)가로정원 조성 이후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안의 모색 등 3가지 내용으로 추진하였음.
- 연구의 방법을 보면 가로정원의 이해관계자, 즉 일반시민, 설계 및 시공자, 감리, 감독을 수행하는 자치구 공무원 등의 직접 면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로정원에 대한 다양한 항목에서 의식수준을 조사하였음. 또한 시험조성지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공유형 및 유지관리상 고려해야 할 문제점, 바람직한 가로정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음.

12.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2014년 8월 15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 공간적 범위: 용산구 남영역과 강남구 테헤란로 가로정원 조성지
- 내용적 범위:
 - 가로정원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고찰
 -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의 유형 분석: 사업의 개요, 입지현황 분석, 기본구상 분석, 시공유형의 분석, 모니터링 및 적합성분석
 -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의 시민의식 설문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설계 및 시공전문가 설문조사,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한 유지관리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12.2

주요 연구과제

- 서울시 가로정원 조성의 취지와 그 목적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향후 바람직한 가로정원 조성을 위한 대안 모색

- 가로정원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사회동향, 연구사례 등을 고찰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가로정원 시범대상지 가운데 2개소를 선정하여 조성 이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원인 구명 및 대안을 검토
- 가로정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설계 및 시공사, 관공서 실무자 등 3개 모집단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하여 가로정원에 대한 각각의 이해도 및 의식수준을 분석
- 가로정원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도출과 실행 전략 수립

1 2 3 정책제언

- 설문조사결과, 삭막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가로정원의 취지가 녹색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고밀도의 관리가 요구되는 가로정원의 특성과는 달리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리주체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도 함께 조사됨
- 현재 서울시의 녹지정책은 점차 민간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도심의 녹지 공간 확보는 어렵고 예산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따라서 공간에서 사람으로, 행정주도에서 시민참여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정책을 전환하여, 도심 속 이웃 간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려는 가로 정원의 핵심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지속적인 관리방안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자발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둘째,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즐거운 공간 조성, 셋째,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도출이 그것임
- 예를 들어, 가로정원 조성과 관련된 가로정원위원회(가칭)를 발족하

고 시민이 가로정원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적절한 가로정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인근에 입지한 기업체들의 협력 및 후원방안을 논의하며, 해당 자치구의 녹지관리 예산을 결합하여 가로축제 또는 페스티벌 장소로 활용하는 대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또한 가로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작성 및 추진이 필요하며, 민과 관을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유형의 플랫폼을 설치하여 미들 업다운(middle up-down) 방식의 소통에 의한 지속적인 가로정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가로는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기존의 관점을 ‘가로는 나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는 관점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실행, 관리의 3단계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이뤄야 할 것임
- 특히 ‘정원은 동사다’는 말처럼 가로정원은 눈으로 감상하는 공간이 아닌 누군가는 물을 주고 흙을 덮어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존재로 인식되어야 하며,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평등한 녹색복지의 대명사인 공공의 정원, 즉 가로정원이 향후 도시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함

차례

I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1	연구의 배경	14
1 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7
2 1	연구의 방법	17
2 2	연구의 내용	18
II	가로정원 관련 이론적 고찰	20
1	도시숲(도시림)	21
2	완충녹지(완충림)	25
3	가로녹지(가로수, 가로숲)	26
4	띠녹지(가로변 하층식생)	28
5	가로정원	28
III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의 유형 분석	32
1	시범조성지의 개요	32
2	기본구상 분석	35
3	모니터링 및 현장적합성	38
IV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에 대한 시민의식 분석	50
1	이용자 설문조사	50
2	설계 및 시공전문가 설문조사	65

3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	75
4	설문조사결과의 통합 분석	85
5	유지관리방안	95
V	결론	102
	참고문헌	108
	부록	112

표차례

표 2-1	도시림의 법률적 내용	23
표 2-2	외국의 도시림 관련 법	24
표 2-3	도시림 정의에 대한 외국 사례	24
표 4-1	서울시 가로정원 추진계획의 문제점 분석	96

그림차례

그림 1-1	서울시 “가로는 정원이다” 프로젝트 기본설계 보고서	16
그림 1-2	서울시 가로정원 시공 전후의 비교 시뮬레이션	16
그림 3-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가로정원 조성 위치도	33
그림 3-2	서울시 용산구 남영역 삼거리 가로정원 조성 위치도	35
그림 3-3	용산구 가로정원 조사지점1 경관	38
그림 3-4	용산구 가로정원 조사지점2 경관	40
그림 3-5	강남구 테헤란로 가로정원 조사지점3 경관	42
그림 3-6	강남구 테헤란로 가로정원 조사지점4 경관	44
그림 3-7	강남구 테헤란로 가로정원 조사지점5 경관	46
그림 4-1	가로정원의 목적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결과비교	51
그림 4-2	띠녹지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52
그림 4-3	띠녹지 조성구역 확대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52
그림 4-4	가로정원의 목적성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53
그림 4-5	띠녹지가 안전펜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응답	55
그림 4-6	띠녹지가 있을 경우 안전펜스를 제거해도 무방하단에 대한 전문가 응답	55
그림 4-7	띠녹지 조성 우수사례(서초구 남부순환로)	56
그림 4-8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57
그림 4-9	가로정원의 무단횡단 방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결과비교	58
그림 4-10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결과비교	59
그림 4-11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60
그림 4-12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62
그림 4-13	가로정원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64

그림 4-14	가로정원의 목적성에 대한 설계·시공전문가 설문조사결과	66
그림 4-15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설계·시공전문가 설문조사결과	68
그림 4-16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계·시공전문가 설문조사결과	70
그림 4-17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계·시공전문가 설문조사결과	72
그림 4-18	가로정원에 대한 설계·시공전문가 설문조사결과	74
그림 4-19	가로정원의 목적성에 대한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결과	76
그림 4-20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결과	78
그림 4-21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결과	80
그림 4-22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결과	82
그림 4-23	가로정원에 대한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결과	84
그림 4-24	가로정원의 목적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종합결과	86
그림 4-25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종합결과	88
그림 4-26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종합결과	90
그림 4-27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종합결과	92
그림 4-28	가로정원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종합결과	94
그림 4-29	조사대상지의 가로정원 유형구분	97
그림 4-30	가로정원 관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99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도시에서 가로공간은 도시골격을 형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인 동시에 도시 거주자나 방문자에게 중요한 공공적 이용 공간이다(김용수 등, 1997).

현재 서울시는 단순 통행위주의 가로공간을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심미적 안정감과 소통의 장소로 제공코자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있다. 가로공간을 경험하는 보행자는 다양한 개별적 보행자공간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통합적 현상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인지하고, 이러한 인지를 통해 형성된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과 평가를 근거로 보행환경을 결정한다(박훈, 2012). 이 때문에 가로에 정원을 조성하는 일은 보행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가로정원 사업은 쾌적하고 걷고 싶은 가로, 심적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만남과 소통이 있는 사회적 공간 등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3년 5월 가로정원 조성이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10월 ‘가로는 정원이다’ 관련 추진계획의 시장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 9월~12월 ‘가로는 정원이다’ 기본설계용역이 시행된 바 있다. 또한 2014년 5월~6월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가 이루어졌으며(대상지별 시공일정은 상이함) 현재 강남구, 용산구,

종로구 등에서 가로정원이 준공완료 또는 시공 중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가로정원에 대한 이해 관계자, 즉 일반시민, 설계 및 시공전문가, 관공서 실무자 등이 갖고 있는 가로정원의 인식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가로정원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즉 가로정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식재공간의 유지관리매뉴얼의 구축도 미흡하여 담배꽂초 등 쓰레기의 투기, 식물과 시설물의 훼손, 관수부족으로 인한 식물의 고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장애, 집중호우 시 배수 및 오염원 유입 등 향후 다양한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가로수는 각 지자체의 ‘가로수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도시림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정성철 등, 2010)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가로정원의 시공 이후 시범조성지에 대한 일정 기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가로정원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지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1-1 서울시 “가로는 정원이다” 프로젝트 기본설계 보고서



그림 1-2 서울시 가로정원 시공 전후의 비교 시물레이션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 가로정원의 시범조성지를 대상으로 가로정원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시공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도심부 가로정원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또는 제한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가로정원의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서울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서울시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의 모니터링
- 2) 가로정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의식 조사
- 3) 가로정원 조성 이후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대안 모색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연구의 방법

- 1) 시험조성지의 모니터링(경관, 식생, 시설물, 이용행태, 관리 등): 시공 이후 주기적인 방문조사를 하여 변화과정을 모니터링
- 2) 일반시민, 설계 및 시공전문가, 관공서 실무자의 가로정원에 대한 설문조사: 가로정원에 대한 목적성, 기능성, 관리주체, 발전방향 등 파악
- 3) 가로정원 관련 다양한 기존 이론의 조사 분석: 가로정원 관련 법 제적, 내용적 고찰

2 2 연구의 내용

2 2 1 가로정원 및 유사분야의 개요와 이론적 고찰

- 1) 도시숲(도시림)
- 2) 완충녹지(완충림)
- 3) 가로녹지(가로수, 가로숲)
- 4) 띠녹지(가로변 하층식생)
- 5) 가로정원

2 2 2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의 시공유형 분석

- 1) 입지현황
: 시범조성지 주변의 토지이용, 상권 등 입지조건
- 2) 기본구상 및 실천사례조사
: 설계사에서 의도한 설계 콘셉트를 파악하고 대상지와의 부합성 조사
- 3) 사용재료 및 적합성 분석
: 설계에 사용된 재료 및 구성요소들의 현장적합성 분석
- 4) 시공 후 경관 변화 모니터링
: 주기적인 대상지 방문조사 및 시공 이후의 변화과정 모니터링

2 2 3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의 시민의식 조사

- 1) 일반시민(이용자) 설문조사
: 가로정원 이용자 및 일반시민의 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 2) 설계 및 시공전문가 설문조사
: 조경, 경관디자인 전문가들의 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 3) 관공서 실무자, 공무원 설문조사
: 자치구 공무원 등 발주처 실무자를 중심으로 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II 가로정원 관련 이론적 고찰

- 1 도시숲(도시림)
- 2 완충녹지(완충림)
- 3 가로녹지(가로수, 가로숲)
- 4 띠녹지(가로변 하층식생)
- 5 가로정원

II 가로정원 관련 이론적 고찰

가로정원은 ‘가로’+‘정원’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가로에 있는 정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현재까지는 가로에 있는 정원이 무엇이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정원의 의미나, 관련 유사 용어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도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성장형 사회’에서 ‘성숙형 사회’로, ‘양의 삶’에서 ‘질의 삶’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면서 도심의 양적 성장에 의해 생산된 인공적인 회색빛 도심경관에 대한 질적 향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시경관을 구성하는데 있어 건물과 함께 중요한 요소인 가로(街路)경관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경숙과 임종현, 2014).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는 차도 쪽으로 가로수가 심겨지거나,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차도와 보도의 경계 부위에 띠녹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소에 따라 띠녹지보다 넓은 녹지와 함께 보행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4년 서울시는 가로변의 띠녹지가 확장된 풍성한 녹지와 보행자가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가로정원 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가로정원의 개념이 등장하기까지 사용되었던 완충녹지, 가로녹지, 띠녹지, 도시숲 등 가로변 녹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고, 이 용어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가로정원만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가로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 도시숲(도시림_urban forest)

1.1 산림임업용어사전에 나온 도시숲의 정의

도시숲은 도시 내부에서 도시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산림(山林), 공원, 고궁, 제방, 정원, 가로수 등으로 산림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총칭이다.

1.2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 나온 도시숲 정의

도시숲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 학교숲, 산림공원, 가로수(숲) 등을 말한다. ‘도시숲’은 법적, 물리적 공간개념 이상으로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적, 전통적, 공동체(community)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일반시민들에게 친근한 용어인 ‘숲’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시숲의 종류: ① 도시산림공원, ② 생활환경숲, ③ 가로숲, ④ 학교숲, ⑤ 마을숲, ⑥ 경관숲 등
- 도시숲의 특징

도시숲은 도시민들의 위락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장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그 형태와 질에 크게 좌우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도시숲의 형질은 지역·지질·형상·방위 등의 요소와 도시숲을 구성하는 대기·식물·동물, 녹지를 둘러싸는 주변건축물과 구조물 등에 의해 형성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여러 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그 효용이 높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도시숲들이 연결되

어 상호보완적인 기능수행이 필요하다.

도시숲은 비교적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이용이 불가피하고(소비의 비배타성),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기 어려운(비배제성) 공공재이며,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민간이 도시숲을 통하여 유형의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에서의 정의

현행법상 도시림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도시지역의 숲으로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차별화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공간적 구획은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추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법에 명시하는 도시림에 대한 더 객관적인 정의 및 이용권 범위와 위치, 기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등장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대한 내용은 표 2-1과 같으며, 해외에서의 도시림 관련 법 및 정의는 표 2-2, 표 2-3과 같다.

표 2-1 도시림의 법률적 내용

구 분	정 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사항)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림등의 추진체계 정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18조의2(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공원형: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형: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4조의2(도시림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시림 및 생활림의 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녹지율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 출처: 도시림 지속성 지수개발 연구(2차)_산림청, 2012

표 2-2 외국의 도시림 관련 법

구 분	법 률
미국	1990년 도시임업지원법(Urban & Forestry Assistance Act)에 의해 10년 단위의 전국 도시임업기본계획 수립
독일	1976년 연방 자연보호법에 의한 환경생태계획에 의해 지구단위에서의 다양한 도시녹지를 조성하고 있음. 자연보호법 §32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비오톱으로서의 역할 중, 3항의 자연적인 숲의 형태의 도시 녹지를 권장함. 건설법 §35, 영역 외의 건설에 근거하면 1항에 토지 및 숲의 제반적인 활동과 영역, 그리고 그 하부 영역으로서 도시림을 분류함. 그 외에도 독일에서의 도시림은 자연보호법, 토지건설법률, 기념물 보호법 등과 관련되어 있음.
일본	도시녹지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 특별녹지보전지구, 사면녹지,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에 의한 근교녹지보전지역, 근교녹지특별보호지구,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림 등이 있음.

* 출처: 도시림 지속성 지수개발 연구(2차)_산림청, 2012

표 2-3 도시림 정의에 대한 외국 사례

구 분	정 의
미 국	농림부 산림청(USDA Forest Service)은 인구 100만 규모의 도시를 중심으로 50마일(약 80km) 이내에 존재하는 산림을 도시국유림(Urban National Forests)으로 정의하였고, 1990년 도시임업지원법(Urban & Forestry Assistance Act)에 의해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독 일	도시림은 도시 공간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자, 자연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정의되며, 도시를 이루는 중요한 삶의 질을 위한 구성요소 등으로 정의되고 있음. 독일 수도인 베를린의 사례에는 시 경계에 있는 사유림으로 이루어진 근교휴양 산림, 도심지를 두르고 있는 공원형태의 녹지림(환상 녹지), 도심 중앙의 티어가르텐(Tiergarten)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방사상의 녹지축(가로녹지), 점적으로 분포하는 개인정원 및 반공개공지가 도시림에 해당함. 이러한 도시림에는 우선 도시광장, 도시정원, 연결녹지, 도시 내 산책로(동선), 도시공원, 도시숲, 도시근교 휴양경관이 속하며, 그다음으로 놀이 및 스포츠 공간, 학교 및 공원시설, 작은 정원, 묘지공원 등이 속하게 됨.
일 본	일본 임야청 산림기본계획에서는 인구 3만 이상의 시정촌에서 시가화구역으로부터 7km 이내에 있는 구역을 도시근교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임업백서(1987)에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정촌 시가화구역에서 20km 이내에 있는 구역을 도시근교림으로 정의하였고, 1999년에는 산림이 연속적 부존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정의하였음. 평지림은 평야부 또는 도시 근교에 소재하는 표고 300m 이하로, 경사 15° 미만의 토지가 75% 이상을 점유하는 시정촌에 존재하는 산림으로 정의하면서 평지림과 도시근교림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출처: 도시림 지속성 지수개발 연구(2차)_산림청, 2012

완충녹지(완충림)

산림임업용어사전에 나온 완충녹지의 정의

완충녹지는 각종 공해와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

완충녹지는 수질오염·대기오염·소음·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완충녹지는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되는데,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대 등 상호 토지 이용의 혼란방지 등 공공 재해를 줄이고 푸른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를 의미한다.

법률 및 지침에 나온 완충녹지의 정의

○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된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완충녹지는 도시 내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토지 이용간의 상충관계를 완화시키고, 환경오염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각종 재해 및 소음피해를 경감하는 등 순 기능적 효과가 있고, 최근에는 생태도시의 관점에서 녹지축의 연계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허길숙 등, 2014).

이처럼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

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복원·개선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4-3-2-1부터 4-3-3-3 까지에 따라 계획·설치한다.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결녹지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녹지와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녹도로서의 기능 등을 하는 선형의 녹지로 크게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와 녹지의 연결 및 쾌적한 보행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도로 구분할 수 있다.

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는 소생물의 이동통로 및 서식지 제공의 역할을 하며, 주변의 녹지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도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한다.

3 가로녹지(가로수, 가로숲)

3.1 산림임업용어사전에 나온 가로녹지의 정의

가로수(畵)는 길가에 나란히 줄지어 심겨져 있는 나무를 말한다. 가로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느낌을 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며, 태양열을 흡수하고 눈이나 바람을 완화시켜 주며, 미기후를 조절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등 여러 기능이 있다.

가로수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에 도로 위에 나무가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있으며, BC 5세기경 중국에서는 열수(列樹)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 가로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도로 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도로를 따라 보도 내 또는 노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점적으로 식재되었다(한봉호 등, 2013).
- 가로녹지는 시설녹지 및 공원 등 도시계획법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녹지를 제외한 도심 내 소규모의 녹지로 특별히 그 위치상 가로변에 존재하여 도시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도시경관 향상,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출처: 『문화경관·생태환경보전 지구 조성전략 연구용역』, 문화체육관광부, 2006).
- 가로녹지는 도시의 가로경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민이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인간의 근원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녹음을 제공하여 도시의 딱딱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완화시켜 준다(출처: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가로녹지 증진방안』).
- 가로녹지의 유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시설녹지(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포함하여 실제로 가로녹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로수, 보도식수대, 중앙분리대, 교통섬, 교각부 녹화, 법면녹지, 벽면녹화, 건물녹화, 공개공지 녹화 등이 가로녹지에 해당한다. 즉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에 접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모든 녹지를 가로녹지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출처: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가로녹지 증진방안』).

띠녹지(가로변 하층식생)

띠녹지에 대한 다양한 정의

- 띠녹지란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위하여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연결하거나 광장, 공개공지 등에 띠 모양으로 조성하는 선형의 녹지이다(출처: 『공원녹지분야 업무협약 매뉴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2011.3).
- 「청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정의) 8항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띠녹지’는 가로 녹지량 증진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폭이 넓은 보도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키 작은 나무나 꽃을 심어 만든 공간을 말한다(「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가로환경 영향요인 분석 연구」, 환경생태학회지).
- 한편 가로녹지의 한 가지 유형인 보도 식수대는 띠녹지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보도 식수대는 보도 내에 수목 등을 식재하기 위해 경계석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분에 가로수를 따라 대상으로 길게 조성된다. 이러한 보도 식수대는 쥐똥나무, 사철나무, 꽃땡강나무 등으로 생울타리를 치는 공간이다. 보도 식수대는 가로수의 생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생육을 증진시키고 가로수 사이의 생태적 연결성을 도모하고, 강우를 투수시켜 도시 내 강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출처: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가로녹지 증진방안』).

가로정원

가로정원에 대한 정의

가로정원은 보행자들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꽃과 나무,

조형물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영역성이 확보된 공간(‘가로는 정원이다’ 기본설계 보고서, 2014)이라고 할 수 있다. 가로정원은 가로를 정원같이 아름답게 가꾸어 시민들에게 심미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꽃, 나무, 사람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가로정원이라는 말은 의미적으로만 설명한다면 복합 언어로 쓰일 수 없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로는 공적인 공간이면서 영역의 구분이 한정적이지 않으며,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반면, 정원은 사적인 공간이고, 공간의 영역성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인의 이용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이용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정원이라는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로라는 공간 안에 정원적인 성격을 갖는 장소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의 공간에서 구분되고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공간이 필요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나무와 꽃, 예술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가로정원은 보행자들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주변에 조성된 정원의 꽃과 나무, 조각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가로는 정원이다’ 기본설계보고서, 2014).

그 외에도 신문기사 등을 보면 가로정원은 가로변의 ‘띠녹지+쉼터’ 조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한겨레신문〉 2014년 2월 3일자 ‘서울시, 골목·옥상에도 정원 만든다’는 기사에서 “이동공간에 그쳤던 가로변이 띠녹지와 쉼터가 있는 ‘가로정원’으로 달라진다. 올해 삼일대로(교동초교~안국역, 기업은행~청계천 600m)와 테헤란로(역삼역~선릉역 1400m) 두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안국동사거리~송례문 2.1km 구간은 한양도성 안 도로 공간 재편의 일환으로 차로를 줄이는 대신 보도를 넓혀 쉼터를 만든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III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의 유형 분석

- 1 시범조성지의 개요
- 2 기본구상 분석
- 3 모니터링 및 현장적합성

III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의 유형 분석

1 시범조성지의 개요

1 1 2014 테헤란로 가로정원 시범조성사업

① 추진목적

단순 통행위주의 가로를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심미적 안정감과 소통의 장소로 제공코자 가로정원 조성 사업을 시범 추진코자 함

② 추진방향

- 쾌적하고 걷고 싶은 가로 보행환경 조성
- 심적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가로 조성
-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 만남과 소통이 있는 사회적 공간 조성

③ 추진경위

- 2013. 5: ‘가로정원 조성’ 논의(행정2부시장 산하 실·국·본부장 참여)
- 2013.05.31.: ‘가로정원 조성’ 관련 그간 진행사항을 행정2부시장에 보고
- 2013.06.03.: 행정2부시장 산하 시·구 5급 이상 간부 보고회 개최
- 2013.07.01.: ‘가로정원 조성’ 관련 추진계획을 행정2부시장에 보고
- 2013.10.03.: ‘가로는 정원이다’ 관련 추진계획을 시장에 보고
- 2013. 9 ~ 12: ‘가로는 정원이다’ 기본설계용역 시행

2014 용산구 공개공지 되살리기 및 가로정원 조성공사

① 추진목적

용산구 남영역 인근 보행자 도로 주변에 설치된 지상배전함과 환풍구 설치 구간을 보행공간의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수직적인 가로정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꽃의 경관을 제공하고 펜스 형태의 2단 수직녹화블록을 설치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공개공지 되살리기 및 가로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

② 추진방향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가로정원 조성
- 지상배전함과 환풍구를 차폐하는 안전한 가로정원 조성
- 무단 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펜스형 가로정원 조성
- 주변 휴게시설 보수 및 식재 보완을 통한 공개공지 되살리기

③ 사업개요

- 대상지: 용산구 남영역 삼거리
- 사업규모: 약 50m
- 사업내용: 공개공지 개선 및 가로정원 조성(지상배전함 및 환풍구 녹화, 수직정원 조성 등)
- 사업기간: 2014. 2 ~ 2014. 8



그림 3-2 서울시 용산구 남영역 삼거리 가로정원 조성 위치도

2

기본구상 분석

2.1

2014 테헤란로 가로정원 시범조성사업

① 조성방향

- 쾌적하고 걷고 싶은 가로·보행환경 조성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가로수 하부와 지하철 출입구 등 유휴공간에 정원식으로 조성
- 보행공간을 가로 시설물, 녹지, 휴게공간 등과 분리
- 보행구간과 정원영역 구분은 일반 경계석 사용을 억제하고 폭이 좁은 재료를 사용
- 심적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가로 조성
- 다양한 화목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화단 조성

- 지하철 출입구, 한전 분전함, 건물벽면 등을 녹화
- 가로등, 교통표지 지주 등을 결이화분 녹화
- 녹피울과 녹시울을 향상시켜 심리적 안정감 제공
 -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 가로변에 보행자가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 가로정원을 벽과 바닥으로 위요되는 느낌으로 조성
- ※ 예시: 벽 - 한국형 전통울타리 취병, 바닥 - 전돌, 데크 등
 - 만남과 소통이 있는 사회적 공간 조성
- 약속 및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특징적인 공간 조성
- 남녀노소 등 다양한 계층이 만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간 조성
 - 설계, 시공, 사후관리 과정에 인접 건물주 가로정원 입양 추진
-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에 인접 건물주, 시민 참여 추진
- 가로 입양제 등 시민참여로 시민의식 고취 및 관리예산 절감
 - 빗물 이용 및 가뭄대비 급수시설 도입
- 가로화단을 빗물유입, 침투가 가능토록 오목형으로 조성
-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유공관 등 다양한 급수시설 도입

② 구상안의 검토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로정원 조성 여부
-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보행통로 확보
- 다양하고 경관미가 있는 초화류의 식재 및 유지관리 여부
-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입체적인 유지관리의 실행
- 쓰레기, 담배꽂초 등의 무단 투기 여부
- 기타 가로정원의 목적성, 기능성의 달성 여부

① 조성방향

- 보행공간의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로정원 조성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 형태의 화단 도입
- 지상배전함과 환풍구 등 불량 경관 차폐
- 1.5m 전후의 높이를 지닌 입체적 수직 화단 조성
- 한전 지상배전함과 환풍구를 차폐할 수 있도록 조성
- 녹시율을 향상시켜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경관개선
-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 보행공간이 협소하므로 인근 카페 앞 휴게공간을 활용
- 보차도 경계부의 가로정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 만남과 소통이 있는 사회적 공간 조성
-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물주기, 식재체험, 식물분양 등 실행
-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녹지대 분양 등 시민참여로 시민의식 고취 및 유지관리예산 절감

② 구상안의 검토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로정원 조성 여부
-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보행통로 확보
- 다양하고 경관미가 있는 초화류의 식재 및 유지관리 여부
-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입체적인 유지관리의 실행
- 쓰레기, 담배꽂초 등의 무단 투기 여부
- 기타 가로정원의 목적성, 기능성의 달성 여부



그림 3-3 용산구 가로정원 조사지점1 경관

① 경관

-조사지점1은 용산구 남영역 인근 보행자 도로 주변에 설치된 지상 배전함과 환풍구 설치 구간을 보행공간의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수직적인 가로정원으로 조성하였음

② 식생

-조사지점1은 삼색조팝, 송악, 사피니아, 오색마삭줄 등이 식재되었고 삼색조팝은 건조에 약한 특성에 의해 잎마름 현상이 쉽게 나타났으며, 사피니아가 식재된 최상단부는 월동이 어려워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철거하였음

③ 시설물

-시설물이 없음

④ 이용행태

-휴식공간 및 시설물이 없어 보행자 및 주변 커피숍 손님들이 감상용으로 이용

-수직정원 내부에 한전 배전함 및 환풍구가 구성되어 있어 관리 목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래티스가 설치되어 있음

-식물에 관심을 보이는 보행자들이 멈춰 서서 사진을 찍거나 일부 흡연자들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접근하여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⑤ 관리

-일부 식재공간 내부로 담배꽂초가 버려져 있으며 수직정원 모서리 부근에 음료수 캔 또는 비닐봉지 등 소형쓰레기가 투기되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를 요함

⑥ 현장적합성

-지상배전함 및 환풍구를 효율적으로 차폐하면서 안전과 경관개선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어 현장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4 용산구 가로정원 조사지점2 경관

① 경관

- 조사지점2는 용산구 남영역 인근 보행자 도로 주변에 아름다운 꽃의 경관을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펜스 형태의 2단 수직녹화블록을 설치하였음
-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설치 후 특별한 경관변화는 없었으나 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거치로 경관이 다소 불량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② 식생

- 조사지점2는 삼색조팝, 수호초, 황금사철, 오색마삭줄 등이 식재되었고 삼색조팝은 건조에 약한 특성에 의해 잎마름 현상이 쉽게 나타났으며, 수호초와 황금사철은 겨울철에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

③ 시설물

- 시설물이 없음

④ 이용행태

- 휴식공간 및 시설물이 없어 보행자 및 주변 커피숍 손님들이 감상용으로 이용
- 무단횡단이 빈번하던 조사지점에 펜스형 수직정원 설치 이후 대부분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⑤ 관리

- 일부 식재공간 내부로 담배꽂초가 버려져 있으며 수직정원 모서리 부근에 음료수 캔 또는 비닐봉지 등 소형쓰레기가 투기되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를 요함

⑥ 현장적합성

- 무단횡단 방지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으며 협소한 보행자도로에서도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수직정원 및 펜스의 역할을 하고 있어 현장적용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5 강남구 테헤란로 가로정원 조사지점3 경관

① 경관

- 조사지점3은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선릉역에 이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보행자 도로에 조성된 가로정원의 일부 구간임
- 기존의 띠녹지가 일직선의 경직된 경관을 연출한 것에 비하여 조사지점3의 가로정원은 둥근 형태의 타워형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자연스러움과 경관적 이질감이 완화됨

② 식생

- 조사지점3은 다양한 초본류가 식재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교목형태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 상단에 초화류 화분을 부착하는 형태로 목본류 식재를 대체하였으며, 겨울철에는 철거함

③ 시설물

- 시설물이 없음

④ 이용행태

- 기존의 띠녹지와 큰 차이가 없으며 별도의 휴식공간 및 시설물이 없어 보행자 및 주변 상업지구 이용자들의 감상용으로 활용

⑤ 관리

- 1,2년생 초화류는 건기와 동절기에 대부분 고사하였으며 다년생 초화류는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후 확인이 필요
- 일부 담배꽂초와 소형쓰레기의 투기가 발견되었으며 답압에 의한 식물의 피해도 경미하게 발견되었음

⑥ 현장적합성

- 보행자도로가 넓은 현장여건 때문에 가로정원 조성으로 인한 보행장애 문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가로정원 조성에는 적합한 공간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띠녹지와 경관적, 기능적으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이용자들이 별도의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6 강남구 테헤란로 가로정원 조사지점4 경관

① 경관

- 조사지점4는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선릉역에 이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보행자 도로에 조성된 가로정원의 일부 구간임
- 경사면에 계단식 데크형태로 수평공간을 조성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

② 식생

- 조사지점4는 목재데크, 테이블과 의자 등 시설물 위주의 정원으로 차도방향의 생울타리용 식재 외에는 별도의 식물이 없음

③ 시설물

- 계단형 목재데크, 테이블, 의자 등 설치
- 보행자에 노출된 휴게시설과 주변 경관이 이질적이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에는 다소 어색하게 조성됨
- 계단형데크와 보행로 사이에 좁은 폭의 화단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구분을 줄 필요가 있음

④ 이용행태

- 보행자 및 주변 상업지구 이용자들의 휴식 및 담소를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음

⑤ 관리

- 생울타리 식물은 기존 띠녹지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테이블, 의자 등은 데크에 견고히 고정되어 조사 기간 중 파손, 이탈 등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⑥ 현장적합성

- 비교적 넓은 폭의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으나 통행 장애 문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가로정원 조성에는 적합한 공간으로 판단됨
- 다만, 보행밀도가 높지 않고 경사가 있는 현장 여건에 테이블과 벤치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7 강남구 테헤란로 가로정원 조사지점5 경관

① 경관

- 조사지점5는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선릉역에 이르는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보행자 도로에 조성된 가로정원의 일부 구간임
- 기존 생울타리 띠녹지 공간에 가로수 하부 식재공간을 연결하여 더욱 풍성한 느낌의 경관을 연출

② 식생

- 조사지점5는 기존 생울타리용 식재와 동일한 수종으로 가로수 하부에 식재하여 식재 공간을 확장

③ 시설물

- 띠녹지 전면에 벤치 설치
- 보행자의 일시적인 휴식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담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는 규모와 구성이 미흡함

④ 이용행태

- 보행자 및 주변 상업지구 이용자들의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음

⑤ 관리

- 생울타리 식물과 가로수 하부 식재 식물은 기존 띠녹지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

⑥ 현장적합성

- 차도방향에 선형으로 식재공간이 조성되어 통행 장애 문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가로정원 조성에는 적합한 공간으로 판단됨
- 다만, 보행밀도가 높지 않고 특징적인 경관 연출이 부족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지관리의 용이함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로정원은 기존의 띠녹지와 차별화된 공간 조성을 방해하므로 가로정원의 본질적인 목적을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IV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에 대한 시민의식 분석

- 1 이용자 설문조사
- 2 설계 및 시공전문가 설문조사
- 3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
- 4 설문조사결과의 통합분석
- 5 유지관리방안

IV 가로정원 시범조성지에 대한 시민의식 분석

1 이용자 설문조사

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위하여 가로정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1 가로정원의 목적성

가로정원의 목적성 분야 중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정원의 필요성, 정서함양과 휴식의 기능, 환경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항목은 84~90%가 “매우, 또는 다소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주변상권 활성화에 기여”, “시민사회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약 51%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들은 경관적인 측면,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도시의 이미지 개선측면에서는 가로정원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마을 커뮤니티의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로정원 조성을 통한 상권의 활성화 부분도 크게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계 및 시공사의 실무자, 전문가들의 답변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로정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조경전문가들은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서 약 7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시민의 51%와는 비교적 큰 견해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경 설계 및 시공 전문가들이 조경 공간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변 상권활성화나 시민사회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작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에게 체감할 만한 이벤트나 운영프로그램은 미흡하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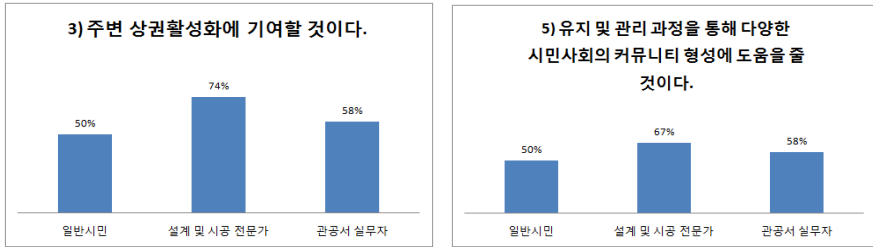


그림 4-1 가로정원의 목적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결과비교

유사한 연구사례로 2010년 6월 가로정원과 비슷한 띠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적절성 평가 설문 조사에서 일반시민의 81.2%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8%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거주민과 거주민은 조성사업 대상지로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82.6%, 83.4%로 나타났으며 상가주민(73.8%)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상가 주민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인 ‘도심가로변 상업종사자의 가로녹화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가로수에 의한 영업지장에 상가주민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로수가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판명(김범수, 2005)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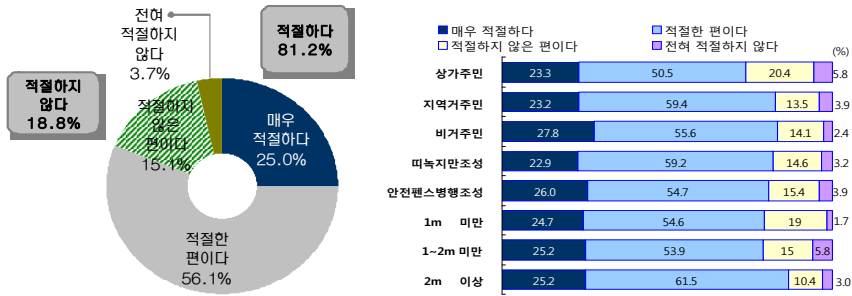


그림 4-2 따죽지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김범수, 2005)

또한 따죽지 조성구역 확대에 대한 찬반여부 설문조사에서 일반시민 84.9%가 찬성하고, 15.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죽지 조성구역 확대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조성 형태는 다층식재형(44.9%), 가로공원형(24.3%), 관목군식형(13.0%)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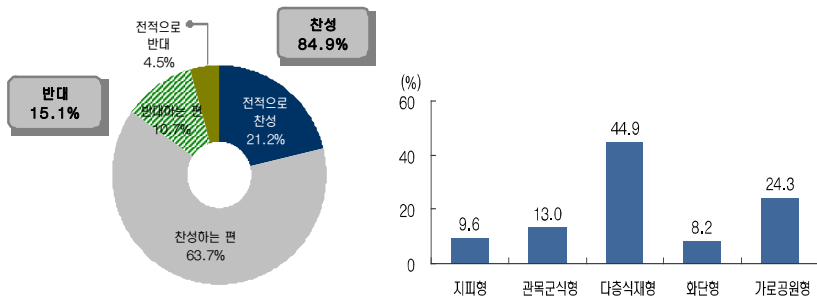


그림 4-3 따죽지 조성구역 확대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김범수, 2005)



그림 4-4 가로정원의 목적성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일반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가로정원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정원의 기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항목에서 60~87%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 일반시민들이 가로정원을 통해 다양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경설계 및 시공전문가의 설문결과 및 관공서 실무자의 설문결과와 비교해 보면, 매우 또는 다소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낮은 수치로 조사되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담당 실무자들에 비해 가로정원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로정원 무단횡단 방지기능에 대해서는 6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오히려 설계 및 시공전문가(46%)에 비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공서 공무원(63%)의 결과와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가로정원의 조성 시 무단횡단 방지기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사례인 2010년 10월 가로정원과 유사한 띠녹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띠녹지가 안전 펜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전문가의 76.2%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4-5). 띠녹지가 있을 경우 안전 펜스를 제거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 81.0%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그림 4-6). 다만 개선 사항으로 띠녹지 조성 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충분한 유지, 보수 관리 및 보행자 안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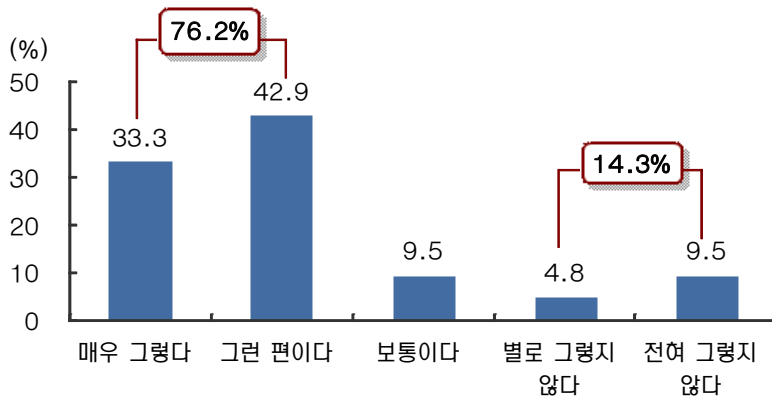


그림 4-5 락이 안전펜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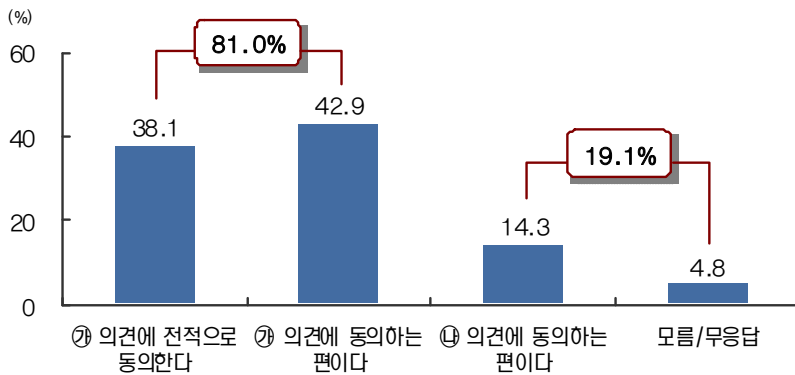


그림 4-6 락이 있을 경우 안전펜스를 제거해도 무방하다에 대한 전문가 응답



그림 4-7 띠녹지 조성 우수사례(서초구 남부순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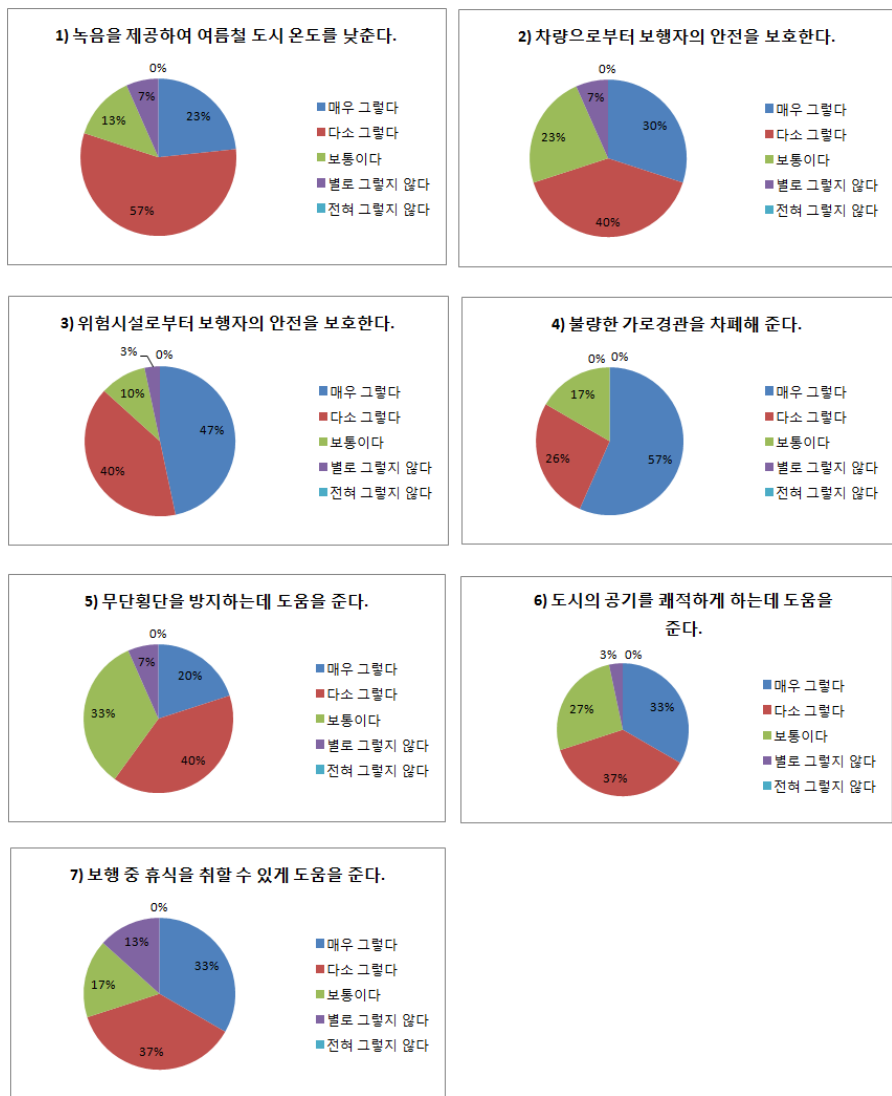


그림 4-8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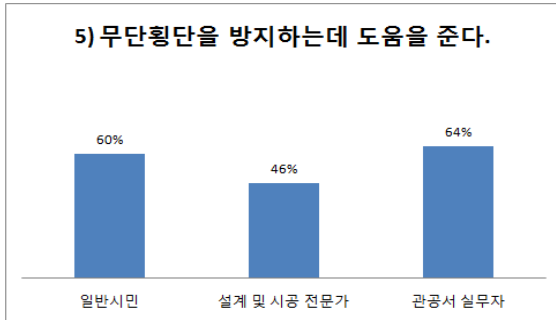


그림 4-9 가로정원의 무단횡단 방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결과비교

13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관리주체)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관리주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일반시민들은 해당자치구(구청)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시민의 약 73%가 가로정원의 관리주체로 해당자치구(구청)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약 42%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관공서 실무자의 설문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로정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향후 가로정원 조성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가로정원이 지역거주민 또는 시민단체의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관공서 실무자 설문결과(42%)와 설계 및 시공전문가 설문결과(47%)에 비해 오히려 일반시민들의 설문결과(63%)가 높게 나왔다.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가로정원의 관리에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흥미롭고 다채로운 가로정원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된다면 시민들에 의한 가로정원 관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리 주체에 대한 설문결과 아쉬운 것은 시민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공감했던 시민들이 정작 주1회 집 앞 거리의 가로정원 물주기 자원봉사의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51%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과 바람직한 일을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접 상가나 건축주, 상가 임차인에 의한 관리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23%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가로정원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해 관공서 실무자는 47%가 인접 상가 임차인이나 건축주에 의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의식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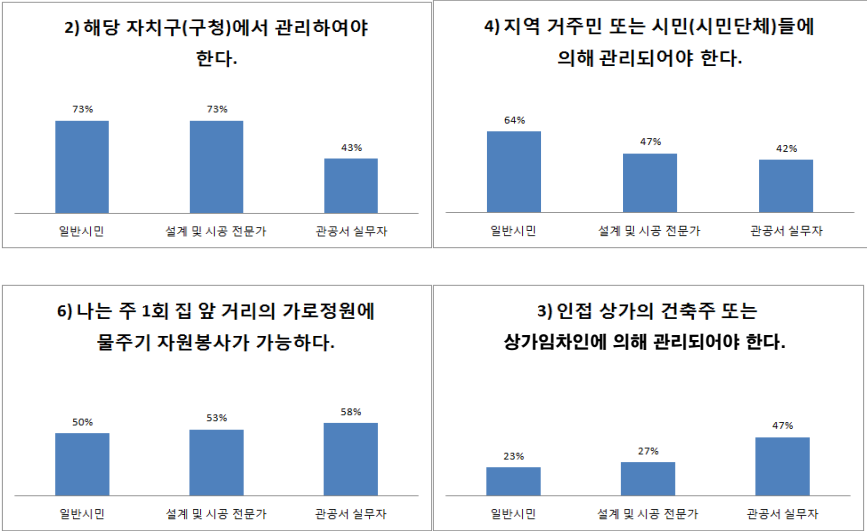


그림 4-10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결과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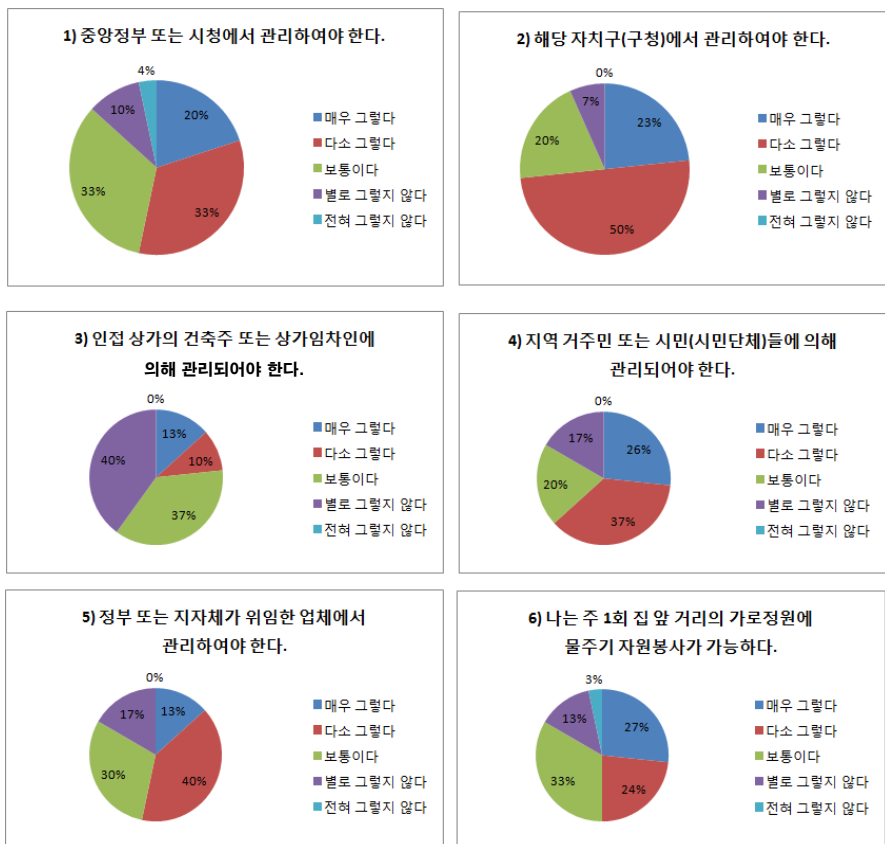


그림 4-11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14 가로정원의 발전방향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일반시민들은 도시 전역으로 가로정원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가로정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가로정원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6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일반시민들은 관공서 실무자

(58%), 설계 및 시공전문가(40%)에 비해 보행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난 항목은 휴게공간 조성과 휴지통 설치에 대한 질문이다. 휴게공간 조성에 대한 질문에 일반시민과 설계 및 시공전문가는 각각 56%, 4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관공서 실무자는 10%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휴지통 설치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시민은 63%, 설계사 및 시공사는 5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관공서 실무자는 21%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가로정원이 갖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가로정원에 앉아 쉬고 담소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담배꽂초 등의 무단 투기는 오히려 가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해당 관청 담당자는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특정 공간에 머무르게 되면, 담배꽂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로정원에 휴게공간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휴지통의 설치와 일반 거주자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유도해, 오히려 가로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이 이해 관계자 간에 서로 상이하게 조사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로정원의 확산 패러다임 못지 않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성숙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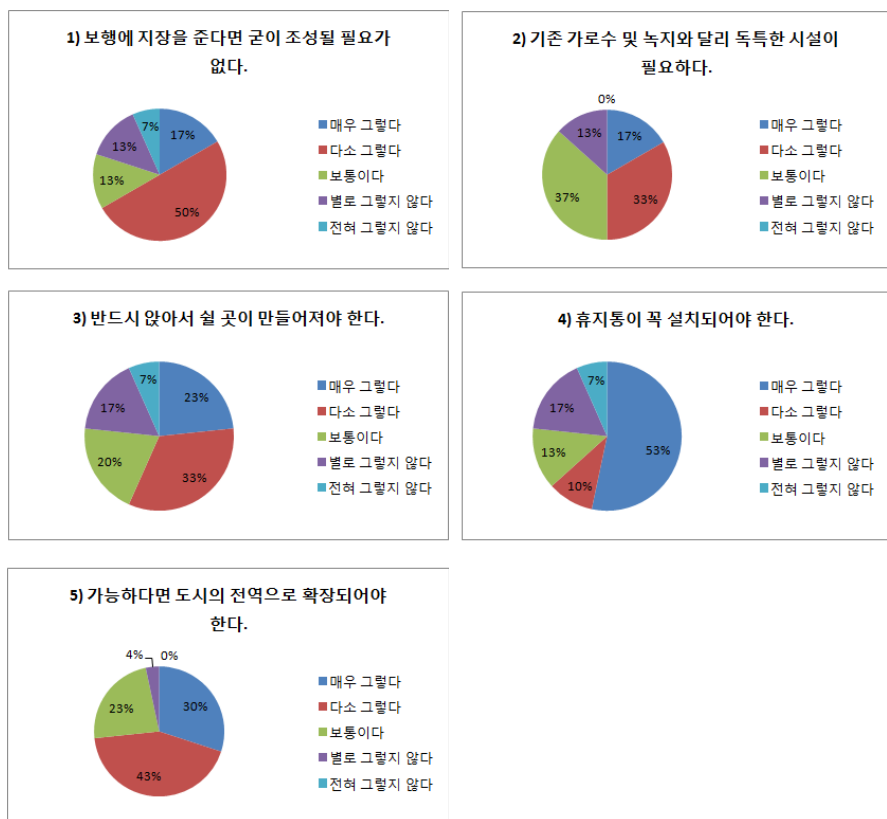


그림 4-12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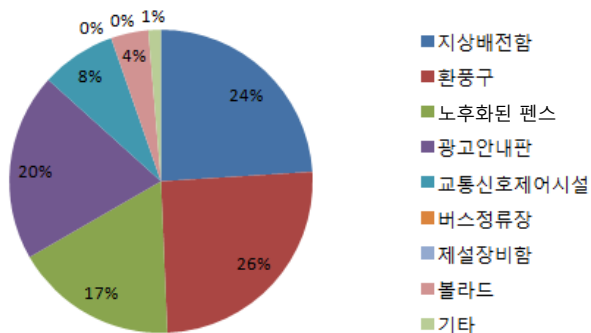
가로정원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가로에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가로시설물로는 환풍구와 지상배전함이 꼽혔고 노후화된 펜스, 광고 안내판 등도 중요한 저해요소로 선택되었다. 상기 4가지 요소는 관공서 실무자나 설계 및 시공전문가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선정된 요소들로 향후 가로정원 조성 시 또는 가로환경개선 사업에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로정원에 필요한 시설로는 식물녹지대가 44%로 가장 높았고, 벤치 등 소형 휴게시설이 26%, 파고라 등 대형 휴게시설이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일반시민 설문에서는 벤치 등 소형 휴게시설은 26%로 필요성이 비교적 높았으나, 관공서 실무자 설문에서는 필요성이 15% 정도로 제한되었다. 또한 파고라 등 대형 휴게시설은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발생하는데, 일반시민 설문에서는 필요성이 10%로 나타난 데 비해 관공서 실무자 설문에서는 필요성이 0%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가로정원의 발전 방향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가로환경의 관리 주체인 관공서 실무자들은 파고라 등 대형 휴게시설의 조성 이후 발생할 여러 가지 유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시민과 관리 주체인 관공서 실무자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이 가로정원의 성공적인 확산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가로시설물은?



2) 가로정원에 필요한 시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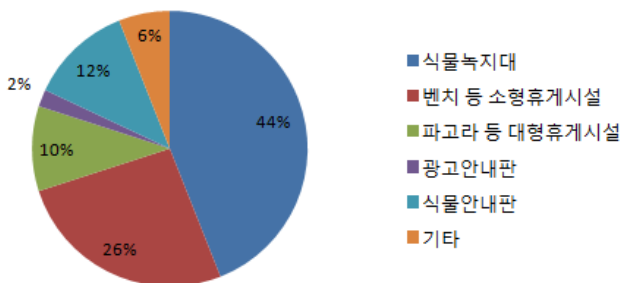


그림 4-13 가로정원에 대한 일반시민 설문조사결과

설계 및 시공전문가 설문조사

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경설계 및 조경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가 및 실무경력자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로정원의 목적성

설계 및 시공전문가의 설문조사결과 가로정원의 목적성은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설계 및 시공전문가들은 가로정원이 지닌 도시경관 개선, 정서함양 및 휴식, 환경도시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가로정원의 목적에 주변 상권활성화나 시민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일반시민(50~51%), 관공서 실무자(58%)에 비해 67~74%로 높게 나타나 가로정원의 목적성을 다소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 및 시공전문가는 도시 공간을 필요에 부합하도록 계획, 설계, 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목적성을 다소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공간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감리 감독하는 관공서 실무자와의 교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정원의 확장성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오히려 오버디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4 가로정원의 목적성에 대한 설계·시공전문가 설문조사결과

2.2 가로정원의 기능성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설계 및 시공전문가들은 대부분 가로정원의 기능을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녹음에 의한 도시 온도 저감기능이나 무단횡단 방지기능 등은 일반시민이나 관공서 실무자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일반시민이나 관공서 실무자와는 달리 설계 및 시공전문가가 이해하는 가로정원은 규모가 협소하고 대부분 도시 내 고밀화 지역, 차량

통행이 빈번한 보차도 경계부 등에 조성되기 때문에 녹지대로서 도시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띠녹지와 달리 장축의 길이가 짧은 가로정원의 특성상 무단 횡단의 방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가로정원은 주변의 중, 대 규모의 녹지대, 비오톱 등과 연계하여 도시 열섬화를 저감할 수 있는 징검다리 코리도어(corrido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띠녹지와 유사한 형태로 조성되더라도 장축이 긴 선형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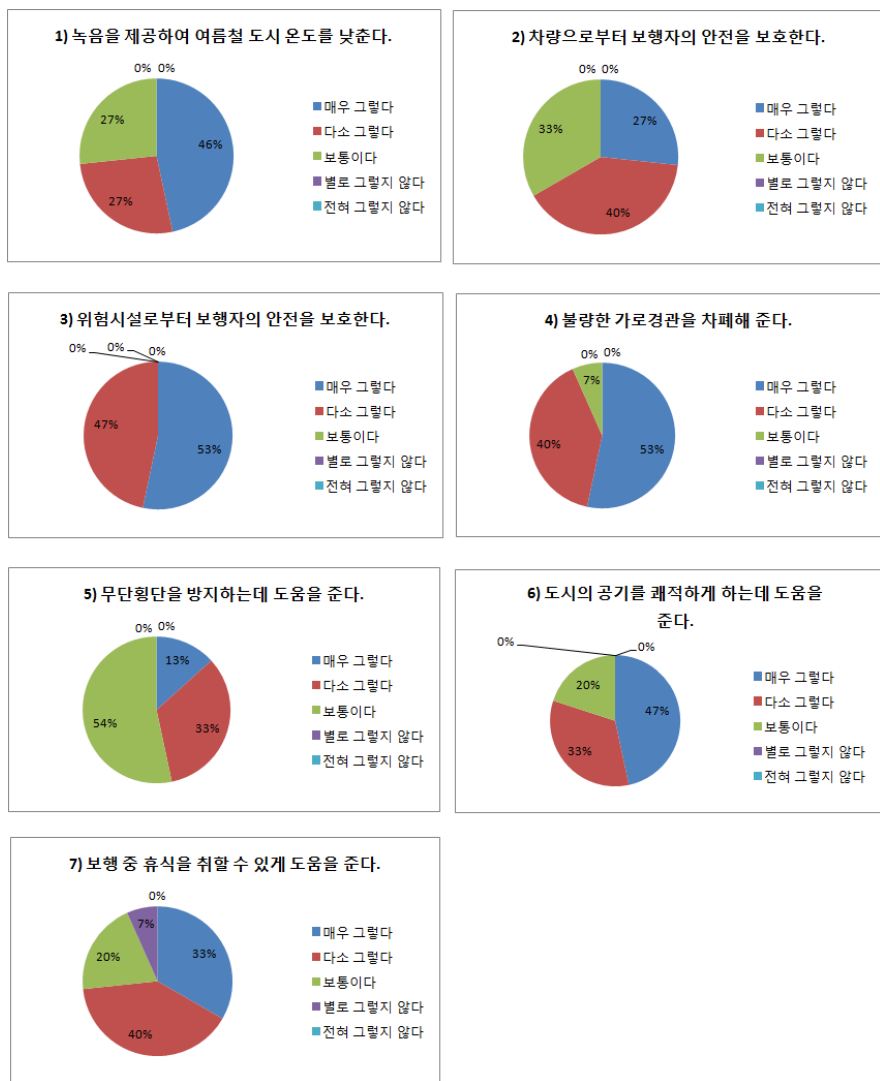


그림 4-15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설계·시공전문가 설문조사결과

가로공원의 지속가능성(관리주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설계 및 시공전문가들은 가로정원이 해당 자치구(구청)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73%가 해당자치구에 의한 가로정원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27%만이 인접상가의 건축주 또는 상가 임차인에 의한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공서 실무자의 설문결과(47%)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며, 일반시민의 설문결과(23%)와는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가로정원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공서 실무자들은 가로정원 관리의 어려움을 주변 거주자(건축주, 상가 임차인 등)의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과 설계 및 시공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나무돌보미 사업과 같이 해당 구청의 협조 요청에 의해 가로정원에 인접한 건물, 빌딩의 관련자가 가로수 또는 가로정원을 부분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관공서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접 건축주에게 관리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더 긴밀하고 허심탄회한 방식으로 논의하여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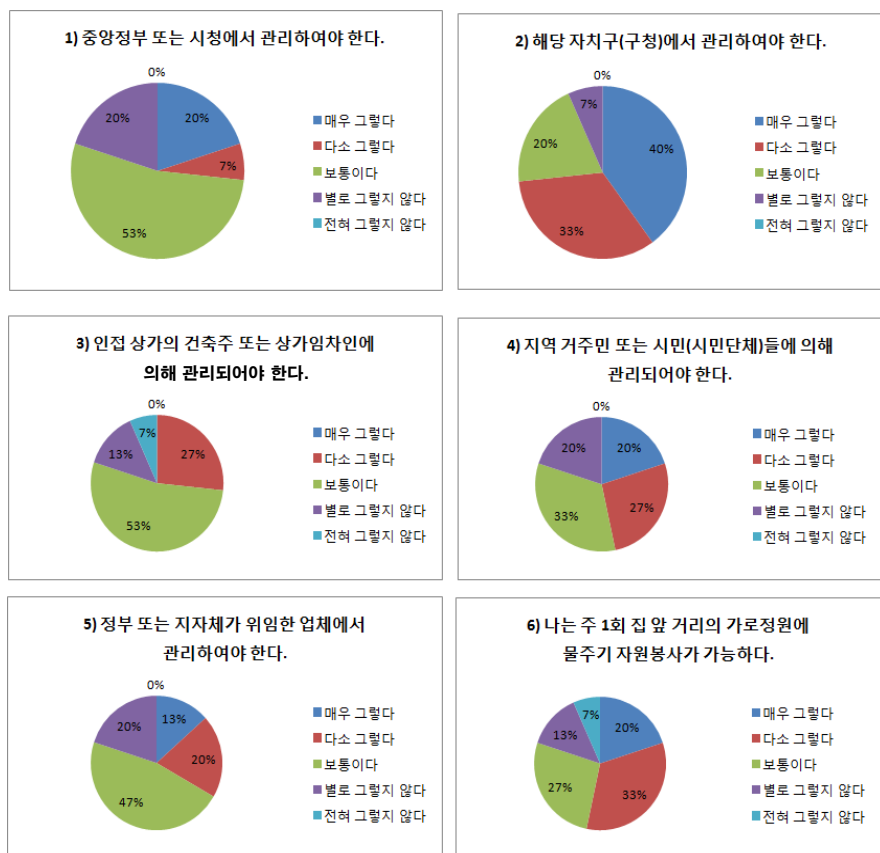


그림 4-16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계·시공전문가 설문조사결과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설계 및 시공전문가들은 도시 전역으로 가로정원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73%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비교적 가로정원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7%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가로정원이 갖는 일부 부정적인 요소들의 해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공서 실무자는 가로정원의 확장성에 대하여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11%였으며, 일반시민도 4%가 그렇게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가로정원에 대한 시민 의식 속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설계 및 시공전문가들은 보행에 지장을 준다면 굳이 조성될 필요가 없다는 항목에서 40%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보행성에 부분적으로 일부 장애가 있더라도 가로정원의 필요성이 높다면 설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일반시민의 설문결과와 다소 대치되는 부분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휴식공간 조성 및 휴지통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계 및 시공전문가는 일반시민보다 낮게, 관공서 실무자보다 높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다양한 설계 및 시공 실무를 경험하면서 필요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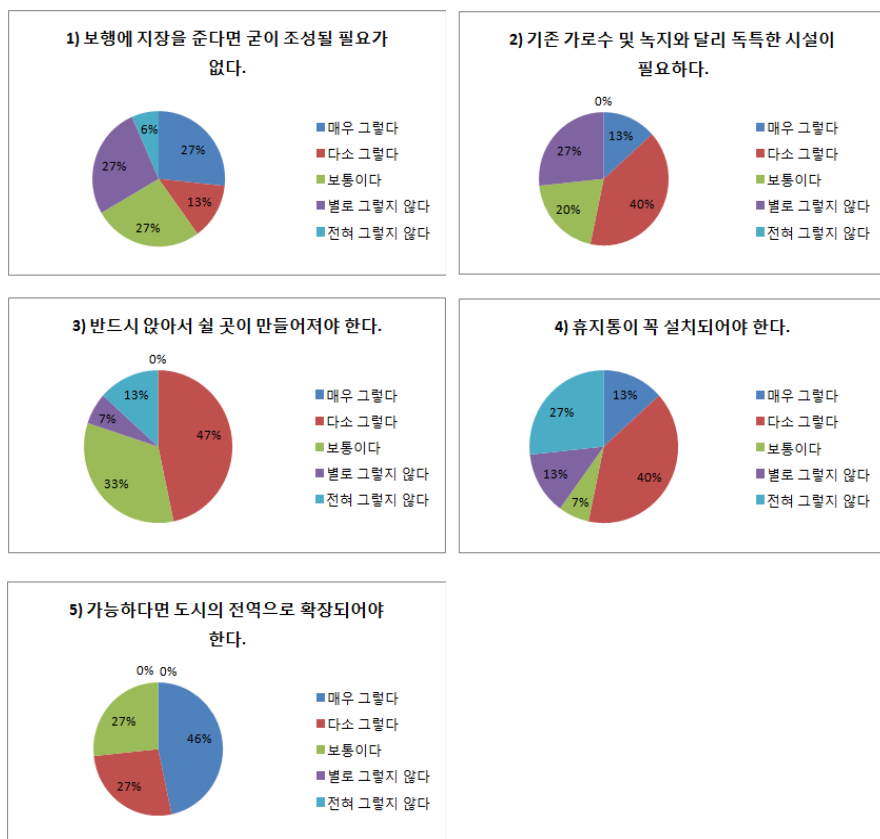


그림 4-17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계·시공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설계 및 시공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가로시설물로 지상배전함, 환풍구, 노후화된 펜스(각각 25%)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관공서 실무자, 일반시민들의 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이다.

가로정원에 필요한 시설로는 49%가 식물 녹지대라고 응답하였고 32%가 벤치 등 소형 휴게시설이라고 응답하여 설계 및 시공전문가는 가로정원이란 식물로 이루어진 녹지대와 부분적으로 설치된 소형 휴게시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시민의 설문결과와는 달리 파고라 등 대형 휴게시설을 꼽은 응답자는 전혀 없었으며, 식물 안내판이 19%로 나타나 설계 및 시공전문가의 경우 가로정원이 보차도 경계부의 협소한 공간에 조성되므로 큰 규모의 휴게시설은 설치가 어렵고 비용도 상승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식물의 식재와 학습을 위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소규모의 자연학습장, 바이오톱의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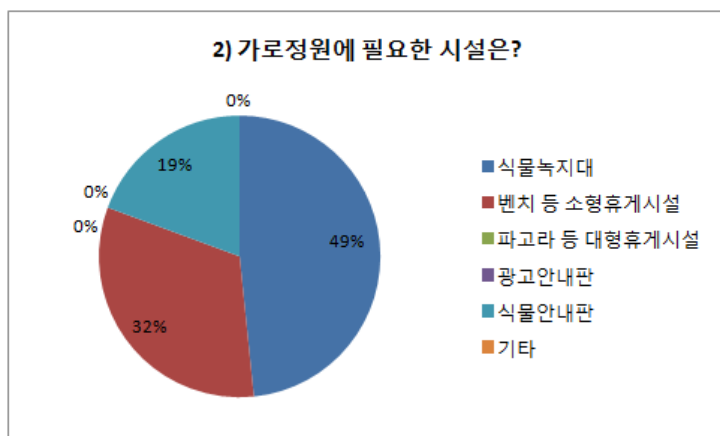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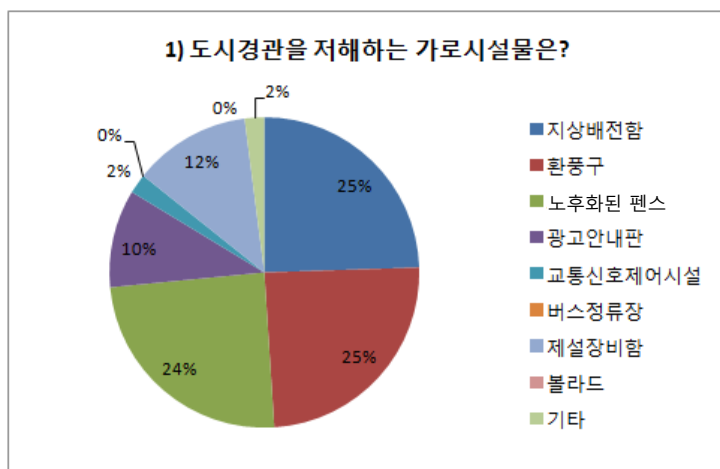


그림 4-18 가로정원에 대한 설계·시공전문가 설문조사결과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

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주처, 관공서 조정 및 가로정원 담당 실무자 3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로정원의 목적성

관공서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가로정원이 갖는 도시경관 개선의 필요성,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 환경도시의 이미지 향상 등의 항목에서 각각 95%, 100%, 95%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가로정원의 목적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계 및 시공전문가, 일반시민의 설문결과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로 관공서 실무자들의 가로정원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로정원이 주변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사회 커뮤니티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58%만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현재 가로정원의 한계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상권 활성화와 시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가로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설계 및 시공전문가가 74%로 가장 높았으며 관공서 실무자는 58%, 일반시민은 51%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19 가로정원의 목적성에 대한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결과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관공서 실무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녹음제공을 통한 여름철 도시온도 저감의 효과, 불량한 가로경관의 차폐, 보행 중 휴식공간의 제공 등의 항목에서 일반시민에 비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 보호나 무단횡단 방지와 같은 방재적 측면에서의 가로정원은 일반시민들과 유사하게 큰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있어 향후 조성될 가로정원은 도시 안전도 향상의 측면에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항목에서는 16%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다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설계 및 시공전문가의 견해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가로정원의 조성 시에는 펜스 형태와 결합된 수직적 가로정원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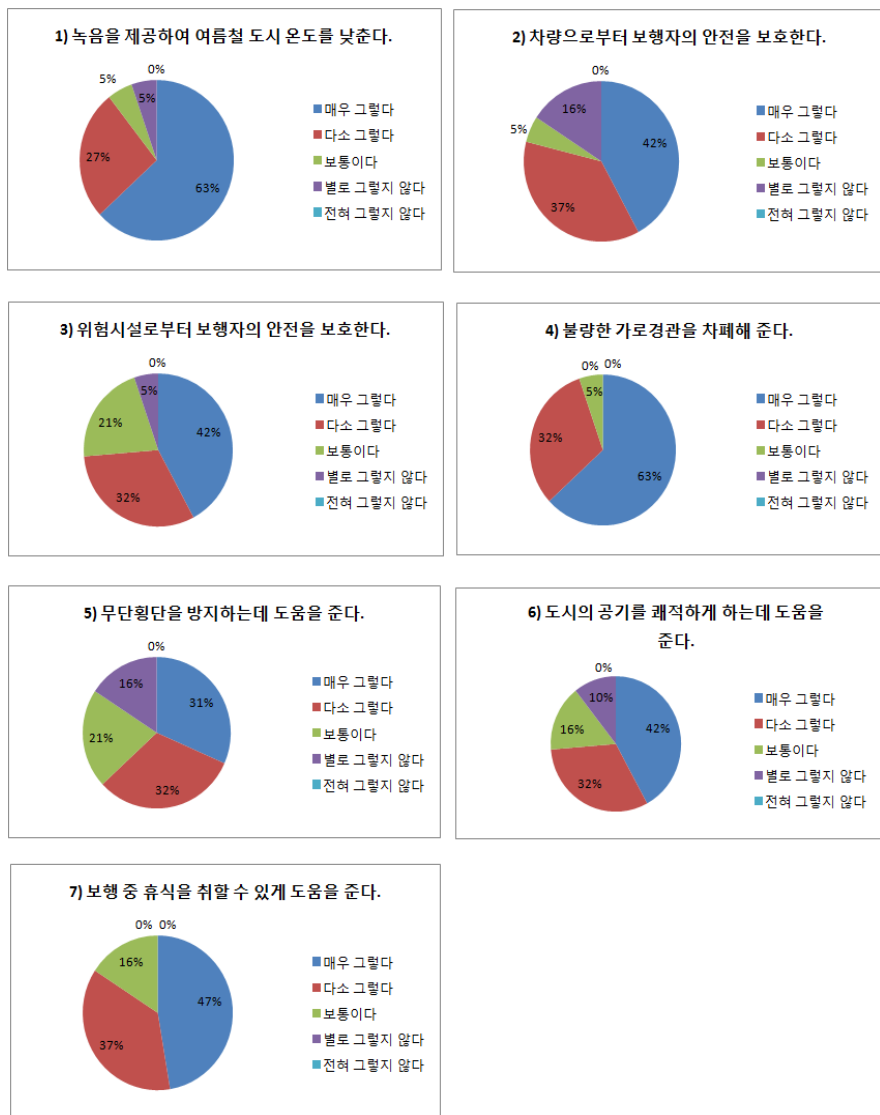


그림 4-20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결과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관리주체)

가로공원의 지속가능성(관리주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관공서 실무자들은 가로정원에 대한 목적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과 달리 가로정원의 관리주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시민, 설계 및 시공전문가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시민과 설계 및 시공전문가는 73%가 가로정원의 관리주체로 해당 자치구(구청)를 선택하였으나 관공서 실무자는 42%만이 관리주체로 해당 자치구를 꼽았다.

관공서 실무자가 판단하는 가로정원 관리주체의 적합성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업체(58%), 인접 상가의 건축주, 상가 임차인에 의한 관리(47%), 지역 거주민 또는 시민단체에 의한 관리(42%), 해당 자치구(구청)에 의한 관리(4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공서 실무자는 가로정원 관리에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일부 지역주민들의 지원에 의한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시민과 설계 및 시공전문가의 설문결과와 상치되는 내용으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로정원의 유지관리 문제가 이른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서로 미루는 모양새가 되면 결국 가로정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 녹화 사업도 추진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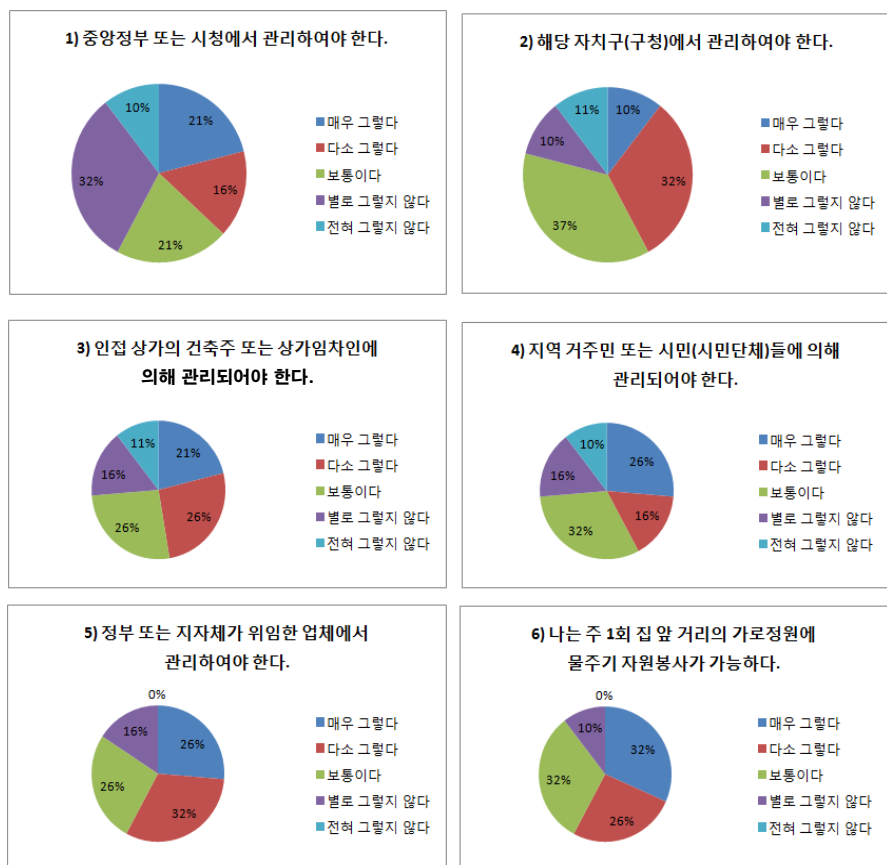


그림 4-21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결과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관공서 실무자들은 가능하다면 가로정원이 도시 전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79%, 보통이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도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앞서서 설 곳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불과 10%, 휴지통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항목에서도 긍정적 답변은 21%에 그쳐 관공서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로정원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로정원의 확장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가로정원의 시행 및 관리주체가 되고 있는 관공서 실무자들의 고충과 우려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시민의 요구사항과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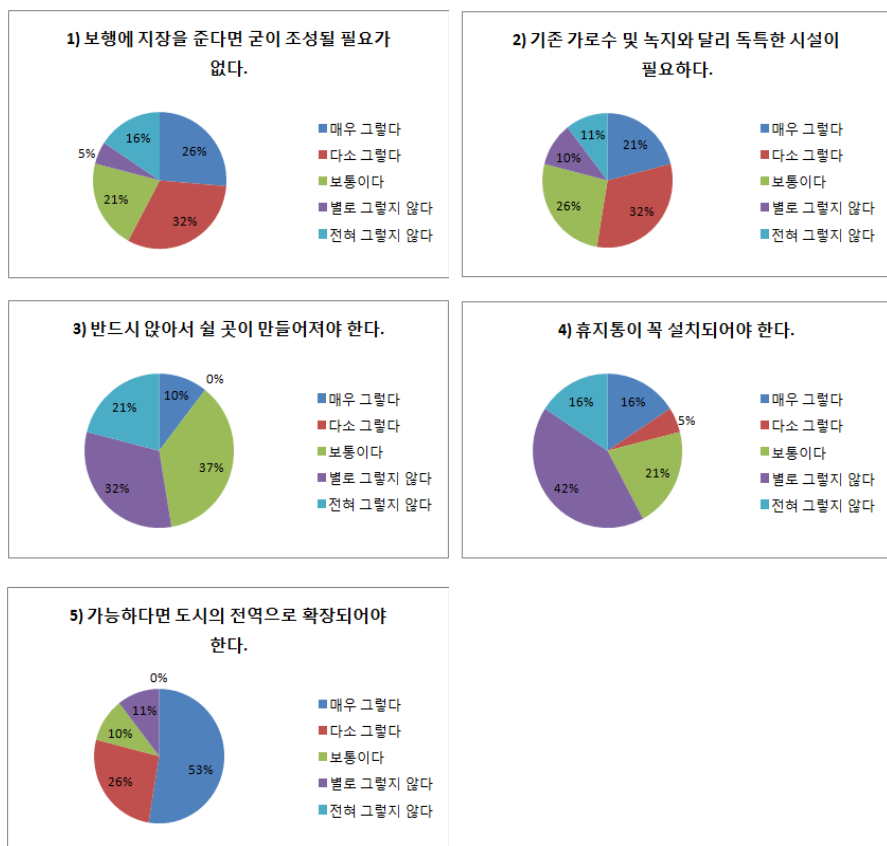


그림 4-22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결과

관공서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가로 시설물로 광고안내판과 환풍구(26%)가 가장 많이 꼽혔고, 노후화된 펜스(19%), 교통신호 제어시설, 제설 장비함(1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로정원에 필요한 시설은 식물녹지대(58%), 식물안내판(23%), 벤치 등 소형 휴게시설(15%)의 순서로 나타나 일반시민, 설계 및 시공 전문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소형 및 대형 휴게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일반시민과 설계 및 시공전문가의 설문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어, 관공서 실무자는 가로정원의 조성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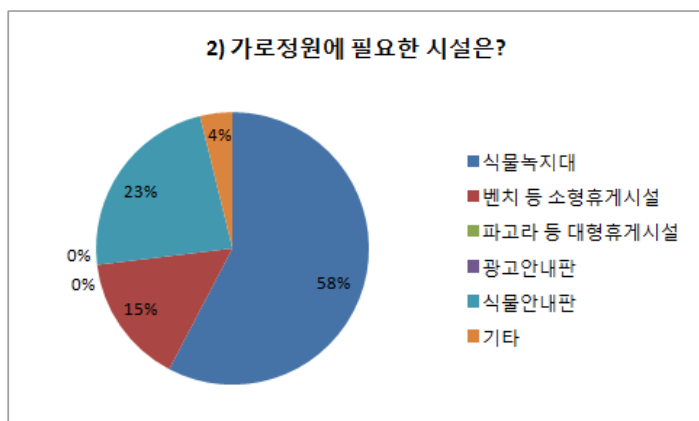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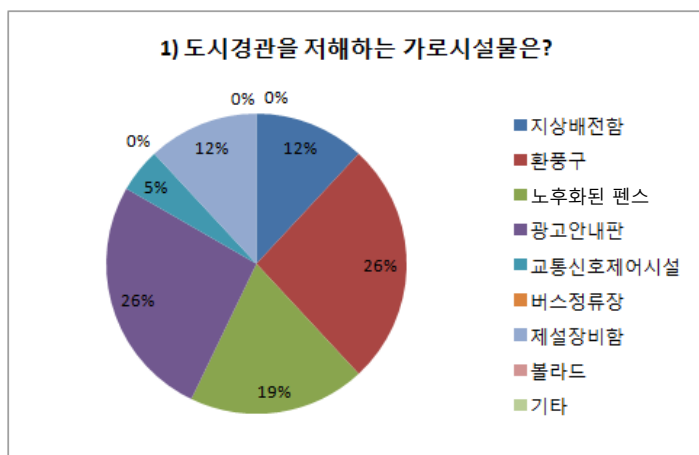


그림 4-23 가로정원에 대한 관공서 실무자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결과와 통합분석

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3개 이해당사자, 즉 일반시민 50인, 설계 및 시공전문가 30인, 관공서 실무자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로정원의 목적성

먼저 가로정원의 목적성 분야 중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또는 ‘다소 그렇다’는 답변이 92%로 나타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가로정원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 환경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87~92%로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주변상권 활성화’ 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는 기대감은 ‘보통이다’,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가 약 43%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단순히 보차도 경계부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주변 상권 활성화나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 내에 가로정원이 보다 활발히 적용되고 가치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가로정원 조성 후 일정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공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가로정원의 계획 및 설계, 시공과정에서 하드웨어적인 접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4 가로정원의 목적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종합결과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 양호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음 제공, 대기질 향상,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는 환경공학적 기능, 차량, 위험시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재적 기능, 불량경관을 차폐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조경적 기능에서 모두 72~89%에 가까운 긍정적 답변이 이루어졌다.

다만 무단횡단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항목은 긍정적 답변이 약 58%, 보통이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약 42%로 나타나 보차도 경계부에 가로정원만으로는 무단횡단 방지 기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평적 공간 조성인 기존 가로정원을 다소 수직적인 펜스 형태와 조합하여 심리적으로 무단횡단 시도를 방해할 수 있는 수직형태의 가로정원 조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5 가로정원의 기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종합결과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관리주체)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 즉 관리주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가로공원은 해당자치구(구청)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64%로 가장 높았고, 인접 상가의 건축주 또는 상가 임차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앙정부 또는 시청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42%로 낮았다.

지역거주민 또는 시민단체에 의한 관리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업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0~5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주 1회 집 앞 가로정원에 물주기 자원봉사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54% 정도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 즉 관리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관리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가로정원에 대한 명확한 유지관리의 주체가 확정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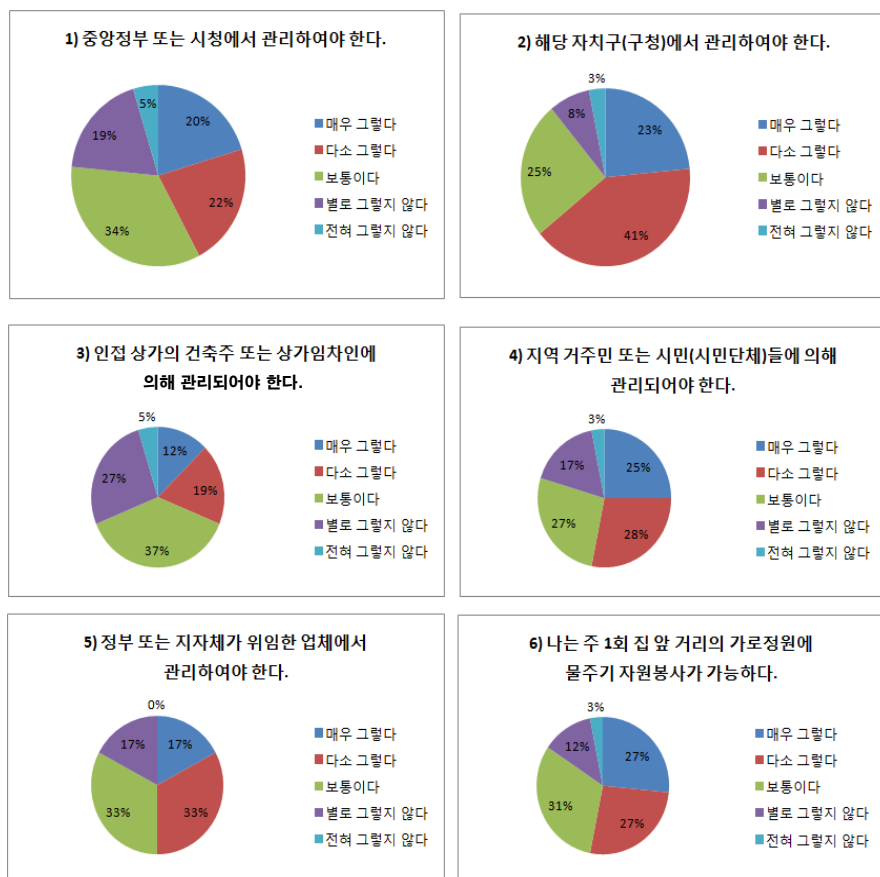


그림 4-26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종합결과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가로정원이 도시 전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는 7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독특한 시설의 설치여부, 쉼 곳의 필요성, 휴지통의 설치 여부 등 가로정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 41~51%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가로정원 조성의 명확한 의미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통합된 견해가 모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로정원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조성될 필요가 없다는 항목에 서는 매우 또는 다소 그렇다가 58%,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23%, 보통이다가 19%로 나타나 향후 가로정원의 조성은 가급적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다소 보행에 지장을 주더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면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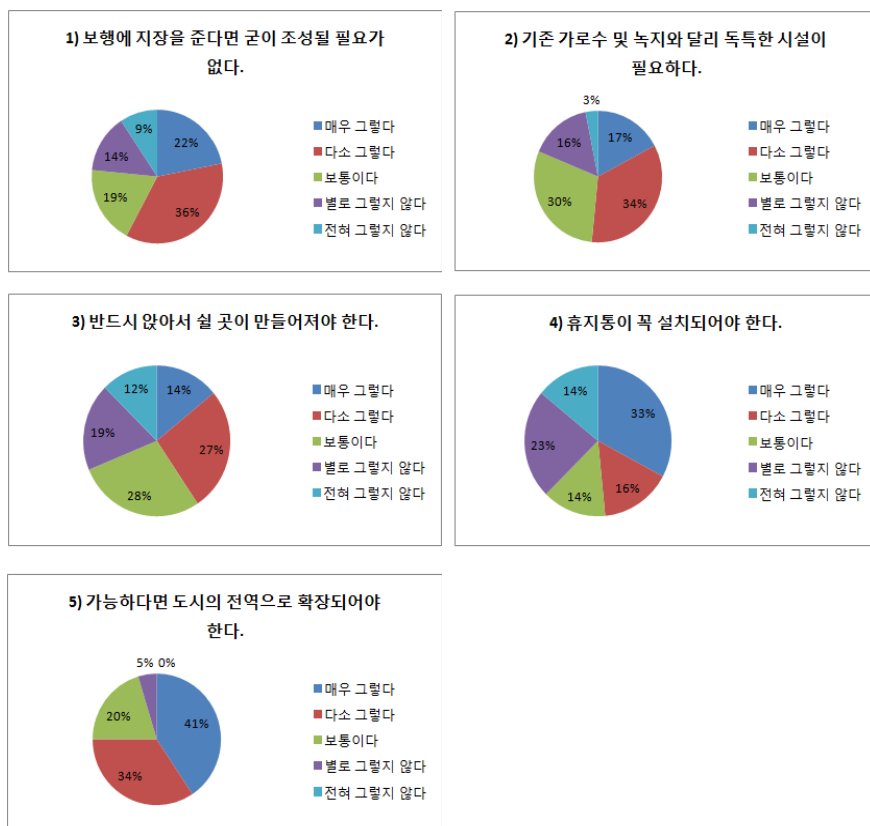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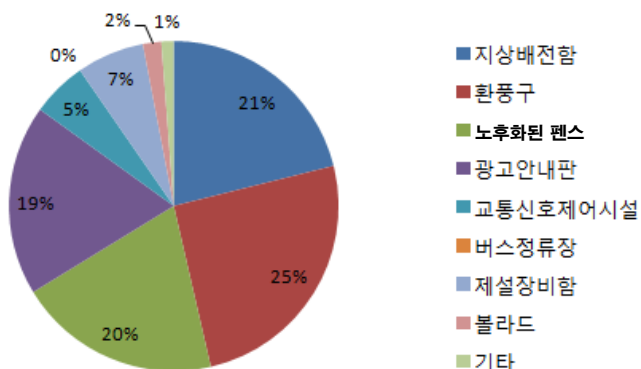
그림 4-27 가로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종합결과

가로정원에 대한 의견

가로에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가로시설물로는 환풍구와 지상배전함, 노후화된 펜스, 광고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 외에 교통신호 제어시설, 제설장비함 등이 도시경관 저해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가로정원에 필요한 시설로는 48%가 식물녹지대를 선택하여 녹색 식물이 가로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로 조사되었으며, 벤치 등 소형 휴게시설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가로정원은 일반 띠녹지에 비해 다양한 식물종, 특히 초화류가 식재되는 만큼 식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식물 안내판의 필요성이 17%로 높은 점이 특이한 사항이다.

1)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가로시설물은?



2) 가로정원에 필요한 시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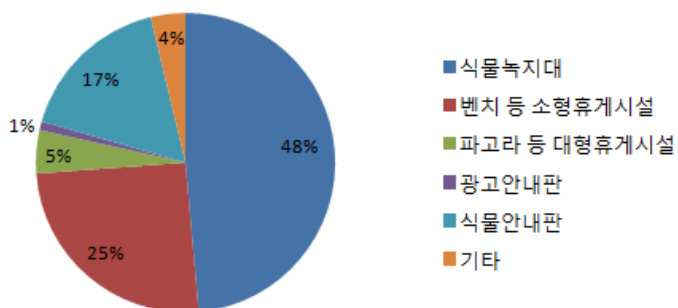


그림 4-28 가로정원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종합결과

가로정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로정원 추진계획의 문제점

서울시는 가로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8개 항목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가로수와 지하철 출입구 등 유휴공간에 정원식 조성, 다양한 화양류 식재, 한전배전함, 환풍구 등 경관불량요소 차폐, 보행자 휴식공간 조성, 약속과 만남의 공간조성, 인접 건물주 등 시민참여 추진, 급수관 등 다양한 유지관리시설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가로정원 조성의 이해관계자들은 표 4-1의 내용과 같이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정원의 조성 자체에 찬성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초화류 식재는 지속적인 고밀도의 관리와 예산이 필요하며, 보행자의 휴식공간 조성은 담배꽂초 등 소형쓰레기의 상습적 투기와 그로 인한 민원이 우려된다. 또한 약속과 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며, 시민참여의 추진은 구체적인 전담 조직과 매뉴얼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점적 관수 및 급수 시설의 도입은 자치구 내 담당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전기, 상수도를 끌어와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표 4-1 서울시 가로정원 추진계획의 문제점 분석

서울시의 가로정원 추진계획 및 내용	이해관계자 응답결과요약 (설계사, 시공사, 발주처, 이용자)
1. 가로수와 지하철 출입구 등 유휴공간에 정원식으로 조성	-보행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정원 조성 자체에는 찬성
2. 다양한 화목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화단 조성	-조화류는 개화기가 끝난 후 경관불량으로 민원의 대상이 됨 -활동이 어려워 주기적 보식과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됨
3. 지하철출입구, 한전배전함 등 경관불량요소를 차폐	-지하철출입구는 보행자가 많아 정원조성이 어려움 -배전함은 한전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4. 가로변에 보행자가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보행자가 쉬기 위해서는 벤치 및 그늘제공 시설이 필요 -휴게시설 주변 담배꽂초 등 투기로 민원제기, 관리 어려움
5. 약속 및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특징적인 공간 조성	-공간 협소와 예산부족으로 랜드마크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6. 설계, 시공, 사후관리 과정에 인접 건물주, 시민참여 추진	-현실적으로 설계, 시공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어려움 -설계 단계에서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및 예산 배제
7. 가로입양제 등 시민참여로 시민의식 고취 및 관리예산 절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발적이지 못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짐
8. 점적 관수, 스프링클러, 유공관 등 다양한 급수시설 도입	-가로변에 상수, 전기, 계량기 설치 등은 자치구 내 담당 부서가 달라 업무 협조가 어려움

52

가로정원의 유형에 따른 관리방안

조사대상지의 가로정원은 그림 4-29와 같이 총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지의 가로정원은 환풍구 및 배전함 녹화용 수직정원, 무단 횡단 방지를 위한 펜스형 정원, 생울타리형 정원, 암석원형 정원, 띠 녹지형 정원, 벤치 등 휴게데크형 정원, 전통담장형 정원, 가로수 하부녹화형 정원 등 총 8개의 유형으로, 가로정원 조성 현장 여건 및 예산, 목적 등에 따라 상이하게 조성되었다.



❖ 환풍구 및 배전함 녹화용 정원



❖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형 정원



❖ 생활타리형 정원



❖ 암석원형 정원



❖ 띠녹지형 정원



❖ 벤치 등 휴게데크형 정원



❖ 전통담장형 정원



❖ 가로수 하부 녹화형 정원

그림 4-29 조사대상지의 가로정원 유형구분

유지관리의 방향성은 8개 가로정원의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구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풍구, 배전함 등 경관차폐용 정원이나 무단 횡단 방지용 펜스형 정원은 적층식으로 조성된 수직정원이므로 점적관수시설에 의한 주기적 관수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직접 관수 등 관수가 가장 중요한 관리 요소이다. 또한 생울타리형, 띠녹지형, 가로수 하부 녹화형과 같이 다양한 초화류의 식재가 주요 내용인 정원은 계절에 따른 초화류의 보식과 동절기 관리 등 식물의 선정 및 보식을 위한 예산의 확보 등이 중요한 관리 요소로 판단된다.

아울러 식물이 배제된 암석원형, 전통담장형, 휴게데크형 정원은 설치된 구조물의 파손 등 시설물 관리와 주변경관과의 조화, 보행자의 이동장애 여부 등이 중요한 관리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설치될 가로정원은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안과 설계 목적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53 자발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가로정원은 사업의 발주처나 설계 및 시공사 등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관계자들에 의해서만 유지·관리되어서는 지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등 시민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가로정원사업을 전담하는 가로정원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그 과정에서 조경학회나 조경사회의 협력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가로정원위원회는 서울시 가로정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고, 시민과 함께 실질적으로 가로정원 유지관리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와 일반 기업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middle

up-down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에 의한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은 시민단체, 자치구, 저소득층의 인력 등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가로정원의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대기업의 사회공헌팀과 협력하여 도시 전체의 녹화사업 및 유지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가로정원위원회 발족 _조경학회, 조경사회 등 지원	가로정원관리 플랫폼 구축 _관련분야 사회적기업 활동
정책수립 및 추진예산 확보	서울시, 자치구, 시민단체 기업의 사회공헌팀 등 연대

그림 4-30 가로정원 관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V 결론

V 결론

-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정원의 시범사업 조성지를 대상으로 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시공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도심부 가로정원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가로정원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하였음.
-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가로정원 시범대상지 조성 후 문제점 파악
 -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결과 가로정원의 조성 이후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식물의 고사,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 일부 훼손 등이 발생함.
 - 유지관리를 위한 커뮤니티가 명확히 구성되어 있지 못하여 자치구, 시공업체에 의해 간헐적으로 관리되며, 시민사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 관리, 식물보식, 관수 등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파손, 쓰레기 투기, 통행의 어려움, 기타 문제점 등 보완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실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2) 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가로정원의 개념과 도시숲, 완충녹지, 가로녹지, 띠녹지 등 기존 유사개념과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아 가로정원에 대한 의식과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가로정원과 기존 유사

용어와의 차이점은 초화류 식재 여부, 휴게시설의 도입 여부, 특징적 경관의 연출 여부, 지속적 관리 여부 등으로 파악되었음.

- 가로정원 조성의 이해관계자, 즉 이용자, 설계 및 시공자, 발주처 실무자의 설문조사결과, 현재 서울시 가로정원 추진계획은 가로정원이 지닌 상기 4가지의 고유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유지관리에서 주체가 명확치 않으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3) 바람직한 가로정원 조성 및 관리 방안

- 가로정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를 통해 가로녹지가 시민 소유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시민 스스로가 주체적인 관리자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시민이 가로정원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구축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가로정원 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가로정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통해 자치구, 시민단체, 기업의 사회공헌팀을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가로환경이 가로정원을 통해 더 즐거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가로정원이 시민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 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의 유연성, 탄력성이 요구되며,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가로공간이 오히려 도심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연구를 통해 가로정원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성과가 크다고 판단됨.

-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가로공간은 도시의 정체성, 도시의 이미지, 도시민의 성숙도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음.
- 2014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정원대중화 심포지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원의 발전과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함. 첫째,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 내 주관부서가 있어야 하며, 둘째, 정원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셋째, 관련 학과를 가진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새로운 개념의 ‘정원학’ 과목을 개설해 능력 있는 정원분야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동시에 일반인들을 위한 좋은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중화에 힘써야 함(한국건설신문 제618호).
- 이 연구는 시민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가로정원의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상기 심포지엄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음. 아울러 시민이라는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가로정원의 구체적 이해관계자인 일반시민, 설계 및 시공전문가, 관공서 실무자의 세부적인 여건과 의식의 진보를 통해 가로정원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정원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과거에 비하면 가히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움. 정부와 지자체까지 나서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원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음. 그러나 과연 이러한 들쭉임이 정원문화의 부활을 의미하는지 다시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환경과조경, 2014).
- ‘정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함(이준규, 2014). 무슨 의미일

까?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격언처럼 공공공간에 조성된 가로정원은 도시경관 개선과 불량경관 차폐라는 공공의 이익에 접하면 모두의 것이 됨. 하지만 1주일에 한 번 물을 주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유지관리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누구의 것도 아닌 ‘뜨거운 감자’가 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정원은 벽에 걸려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님. 태어나고 성장하고 상처입고 죽어가는, 살아있는 작은 생명체들의 모임으로, 팔짱끼고 눈으로 감상하는 공간이 아닌 물주고 흙을 뿌리고 거적을 덮어주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존재일 것임. 그것이 정원을 명사가 아닌 동사라고 부르는 이유이지 않을까?
- 자본과 신분의 격차가 점차 벌어져만 가는 양극화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부유한 자는 자기 집의 앞마당에 고가의 소나무를 심고, 가난한 자는 정원이란 단어조차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현실임. 그 속에서 평등한 녹색복지의 대명사인 공공의 정원, 가로정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도시 구현의 작은 씨앗으로서 도시 곳곳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봄.

참고문헌

참고문헌

〈학위논문〉

1. 김윤재, 2008, “친환경적 도심재생을 위한 가로공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안산시 도심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김택균, 2004, “가로녹화현황 및 개선방안-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유현정, 2014, “가로경관의 녹화유형에 따른 시각적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4. 정미숙, 2011, “공동주택단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가로공간 활용특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반논문〉

1. 김경숙·임종현, 2014, “가로 입지환경 분석을 통한 녹지계획 방향-동대문구 가로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 김범수, 2005, “도심가로변 상업 종사자의 가로 녹화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환경과학회지
3. 김용수·강신용·권기찬·김수봉·임원현·조용기, 1997, “도시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가로공간 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4. 박훈, 2012,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디자인 전략 연구-어번픽취레스크 특성을 활용하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4권4호(통권52호)
5. 정성철·이민하·구교상·조은경·한상열·허태철·주성현, 2010, “도시립조성, 관리방안에 관한 시민-공무원 인식조사-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6. 한봉호·곽정인·김홍순, 2013, “가로녹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가로환경 영향요인 분석 연구-서울시 관리도로를 대상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7. 허길숙·김기호·양승우, 2014, “간선가로변 완충녹지 위치 변화에 따른 가로활성화 실증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기타〉

1. 가로는 정원이다 기본설계, 2014, 서울특별시

2. 공개공지 되살리기 및 가로정원 조성공사, 2014, 용산구청
3. 서울 꽃으로 피다-꽃과 나무로 가득한 고향 같은 도시 서울 조성, 2014,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백서 2013, 서울특별시
4. 서울시 보도자료, 2010, 보행자의 푸른 안전띠, '띠녹지' 확대,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5. 오경아, 2014, 정원, 천천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찾아올 문화, 환경과 조경 통권 312호
6. 이준규, 2014, 다시, 되새겨야 할 정원의 정체성, 환경과 조경 통권 312호
7. 한국건설신문, 2014, 정원대중화, 정부 내 주관부서 필요하다, 한국건설신문 제618호
8. 환경과조경, 2014, 특집: 다시 정원을 말하다, 환경과 조경 통권 312호
9. 황주영, 2014, 정원의 귀환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환경과 조경 통권 312호
10. 2014 테헤란로 가로정원 시범조성 추진계획, 2014,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부록

부 록 1. 가로정원 관리방안 설문조사지

가로정원 관리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테헤란로 및 용산구 남영동 가로정원 조성대상지를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하는 '2014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보차도 경계부에 조성되고 있는 가로정원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 방법은 아래 가로정원 조성사례 사진을 참조하시거나, 또는 평소 가로변에 조성된 가로정원을 보시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자께서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조사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설문 응답지는 팩스나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주)이자인 2014년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팀

■연구진 : 과제책임자_정경진(010-2301-3603)

■Tel. 02-413-7490, Fax. 02-413-7491

■회신 : E-mail, ezign@hanmail.net

〈참조용 가로정원 조성예시〉



〈조성전〉



〈조성전〉



〈조성후〉



〈조성후〉

(용산구 남영역 근처 배전함, 환풍구 사례 및 가로정원 조성사례)



(강남구 테헤란로 근처 가로정원 조성사례)

I. 가로정원의 목적성

문항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가로정원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2)가로정원은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을 위하여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3)가로정원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4)가로정원의 환경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5)가로정원은 유지 및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II. 가로정원의 기능성

문항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가로정원은 녹음을 제공하여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춘다.	⑤	④	③	②	①
2)가로정원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⑤	④	③	②	①
3)가로정원은 환풍구나 배전함 등 위험시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⑤	④	③	②	①
4)가로정원은 불량한 가로경관을 쉽게 차폐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5)가로정원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6)가로정원의 식물은 도시의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⑤	④	③	②	①
7)가로정원은 시민이 보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⑤	④	③	②	①

Ⅲ.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관리주체)

문항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가로정원은 중앙정부 또는 시청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2)가로정원은 해당 자치구(구청)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3)가로정원은 인접 상가의 건축주 또는 상가임차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4)가로정원은 지역 거주민 또는 시민(시민단체)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5)가로정원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업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6)나는 주1회 자원봉사 형태로 집 앞 거리의 가로정원 식물에 물을 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IV. 가로정원의 발전방향

문항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보행에 지장을 준다면 가로정원은 굳이 조성될 필요가 없다.	⑤	④	③	②	①
2)가로정원에는 기존 가 로수 및 녹지와 달리 독 특한 시설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3)가로정원에는 꼭 시민 이 앉아서 쉴 곳이 만들 어져야 한다(벤치, 파고 라 등).	⑤	④	③	②	①
4)가로정원에는 시민을 위한 휴지통이 꼭 설치 되어야 한다(담배꽂초 투기방지 등).	⑤	④	③	②	①
5)가로정원은 가능하 다면 도시의 전역으로 확 장되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V. 가로정원에 대한 의견

1.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가로시설물이라 생각하시는 부분은? (복수선택 가능)
①지상배전함 ②환풍구 ③노후화 된 펜스 ④광고안내판 ⑤교통신호제어시설 ⑥버스정류장 ⑦제설장비함 ⑧볼라드 ⑨기타()
2. 가로정원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식물녹지대 ②벤치 등 소형휴게시설 ③파고라 등 대형휴게시설 ④광고안내판 ⑤식물안내판 ⑥기타()
3. 기존에 이용했던 가로정원 중 가장 좋았던 장소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기존에 이용했던 가로정원 중 가장 좋지 않았던 장소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가로정원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예_담배꽂초투기 방지, 쓰레기투기 방지, 식물관리, 벤치추가설치 등)
()
6. 기타 가로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통계를 위한 질문 사항

SQ1. 연령? [만 세]

SQ2. 성별? ①남 ②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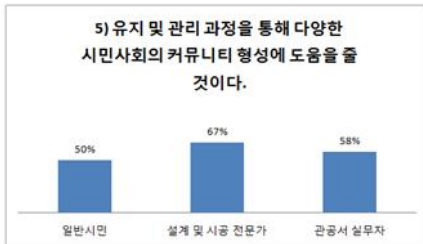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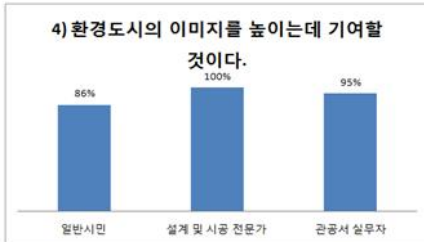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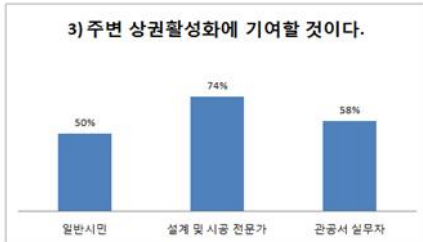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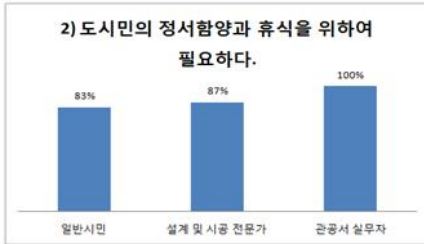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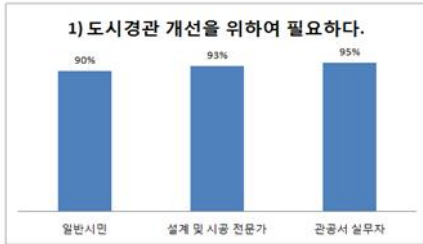
SQ3. 주간 가로정원 이용횟수는? ①1~3회 미만 ②3~10회 ③11~20회 ④20회 이상

SQ4. 평상시 주요 활동지역과 가로정원의 접근성은? ①반경50m 이내 ②반경100m 이내 ③반경500m 이내 ④반경1,000m 이내 ⑤반경1,00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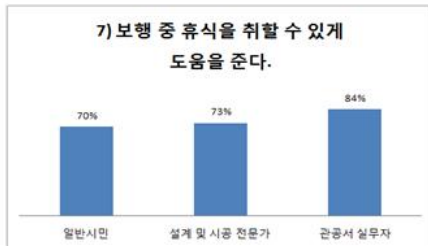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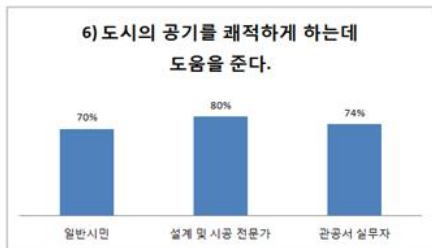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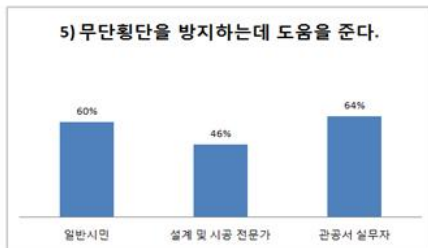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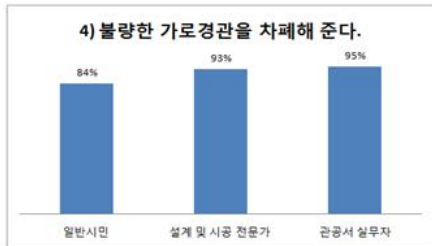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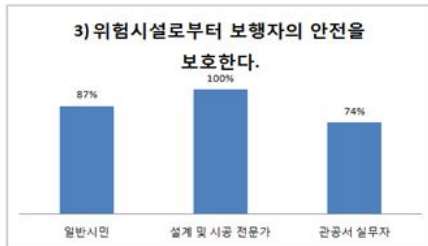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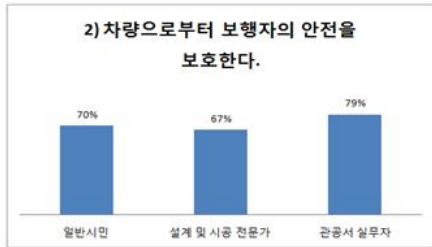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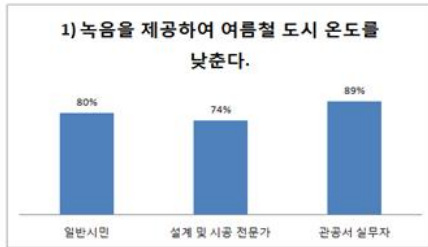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2. 설문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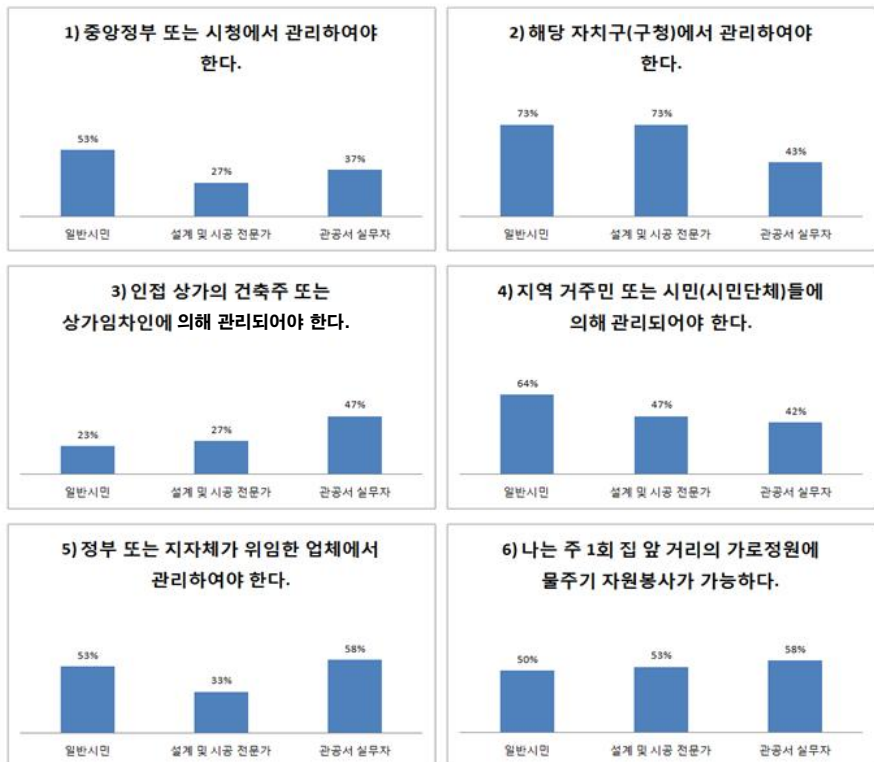
1. 가로정원의 목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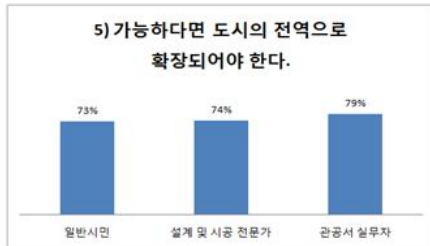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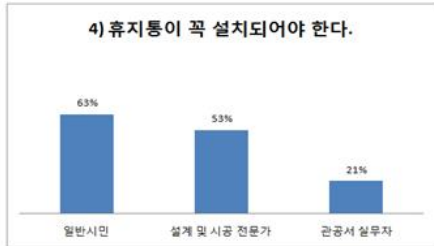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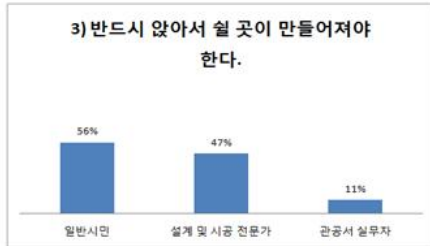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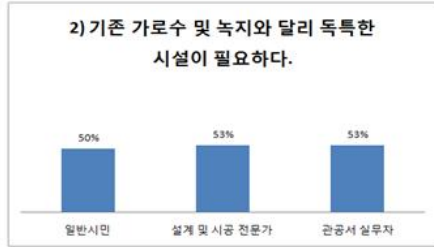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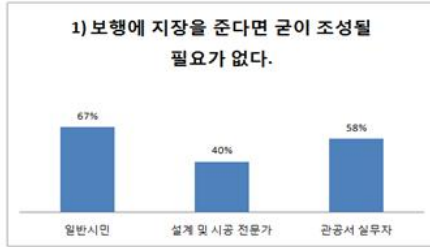
2. 가로정원의 기능성



3. 가로정원의 지속가능성(관리주체)



4. 가로정원의 발전방향



서울연 2014-CR-20

도시가로정원에 대한 시민의식과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로정원 시범조성지 모니터링

발행인 김수현

발행일 2015년 1월 1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19

비매품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